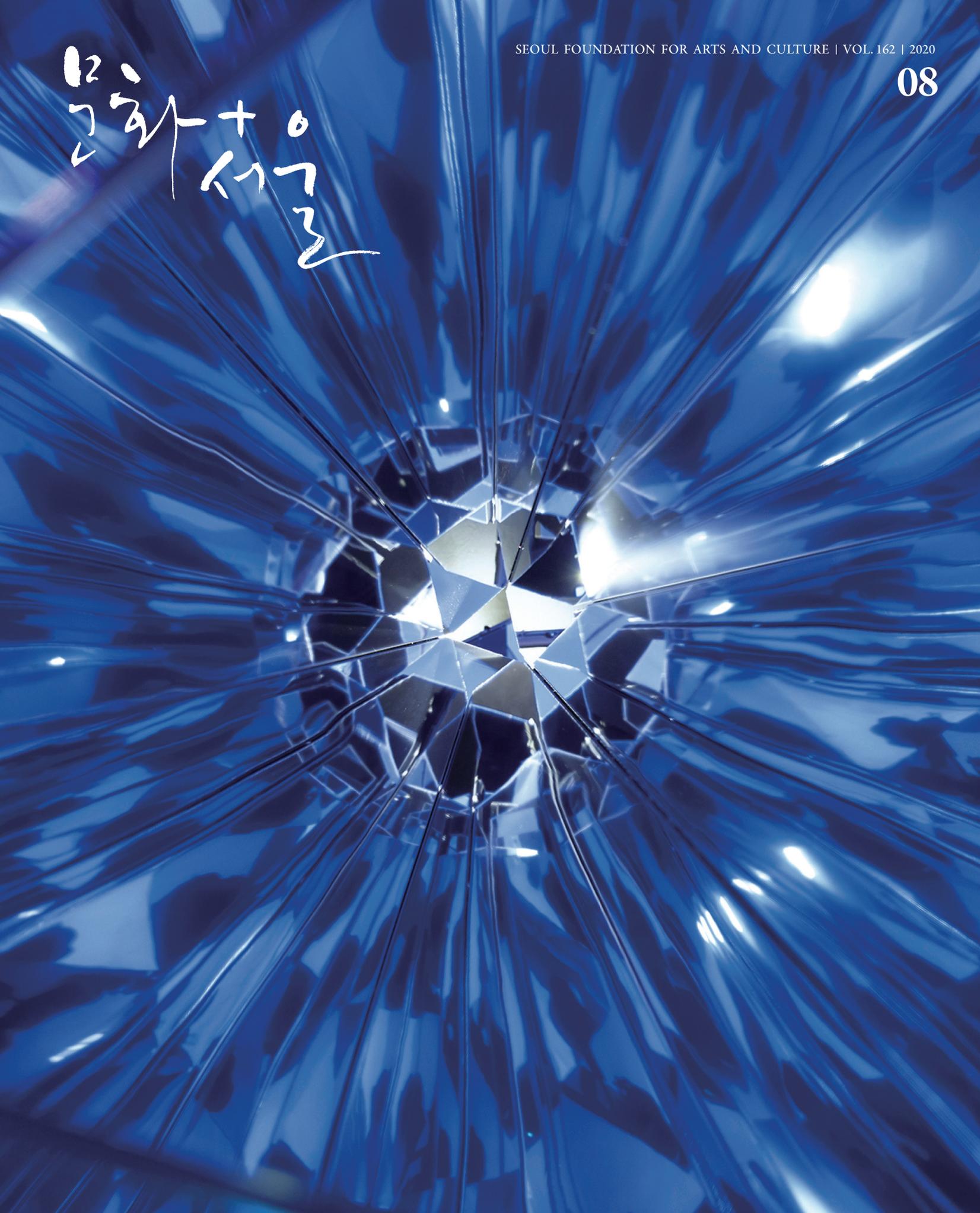


02.
7화 + 0
8172



임선이

이달의 표지 작가



1971년 대전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조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시대마다 변화하는 풍경과 '봄(seeing)'이라는 선형적인 시지각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 왔다.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시각·지각의 모호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인간을 작품 주제로 삼기도 한다. <부조리한 풍경> <기술하는 풍경> <걸어가는 도시, 흔들리는 풍경-SUSPECT> 등의 전시를 열었고, 2019년 <양자의 느린 시간(Slow time in Quantum)>이라는 타이틀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아르코미술관·소마미술관·우양미술관·수원아이파크미술관·경남도립미술관·제주도립미술관·우민아트센터 등에서 진행된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2017년 제1회 JCC프론티어 미술대상 우수상, 2004·2008년 송은미술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0년 5월에는 금천예술공장 PS333에서 전시 <왼손의 움직임>에 기획 및 작가로 참여해 전시를 진행했다. 현재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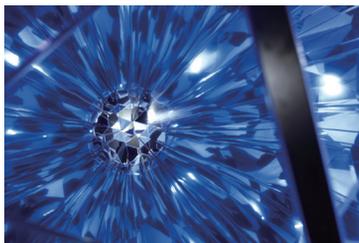
개인전 <양자의 느린 시간>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전시는 노인이 된 두 남자를 소재로 삶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은유해, 그들의 느린 시간을 수평선상에 두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들의 신체에 나타난 삶의 흔적과 몸의 무의식적 행위에서 드러나는 함축된 총위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상과 공존의 방법을 이야기했다. 노화된 눈과 손, 그리고 말의 파동, 느린 기억의 회로 등 몸에 나타난 기억들을 유기적으로 카테고리화해 전시했다.

그중 작품 <108개의 면과 36개의 시선, 또 다른 한 개의 눈>은 삼각형 3개 면으로 이루어진 만화경이 한 단위의 모듈이 돼 36개가 결합된 형태다. 36개의 모듈은 108개의 면을 이루는데, 이는 불교의 철학적 수인 동시에 몸을 이루는 감정적 수이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의 모듈을 더해 또 하나의 시선 또는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눈으로 형상화했다.

작품은 모듈이 불규칙하게 결합돼 다층적 시선을 갖는다. 작품을 이루는 거울 면이 서로 바라보고 비추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만화경이 만들어낸 긴 관을 지나 좁아지고 마주하는 끝 면들에서 결정되는데, 긴 미러의 삼각 면을 이루는 관이 서로 비추는 구조로 불규칙하게 대상의 다층적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시선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곳이 된다.

작품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대상을 결정짓는 눈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감각과 무수한 경험과 선형적 몸의, 물리적 환경의, 역사적 움직임의 레이어로 이루어진다. '본다'의 의미는 물리적·심리적·역사적 의미의 다층적인 경험을 수반하며, 현재 풍경과 병치돼 정의되지 않은 상을 담는다.

표지 작품
 <108개의 면과 36개의 시선, 또 다른 한 개의 눈>
 금속·아크릴미러·아두이노·LED조명
 설치가변 | 2019



이달의 표지



<녹슨 말>
상들리에·아두이노·디밍·LED조명·FRP·소금 등 | 설치가변 | 2019



'유토피아' 시리즈 <#1항해자>
라이트젯 C-프린트 | 100×150cm | 2019



'유토피아' 시리즈 <#유토피아>(왼쪽), <#3단단한 섬>(가운데), <#4여정(旅程과 旅情)>(오른쪽)
라이트젯 C-프린트 | 53×80, 53×80, 60×90cm | 2019

CONTENTS

2020 08 VOL. 162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객원 편집위원 김태희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임선이

테마 토크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예술의 움직임

06 리포트

융합예술의 흐름 짚기

10 현장 스케치

커넥트 투모로우 '현장 강연' 스케치

12 인터뷰

시대를 이끄는 예술가 4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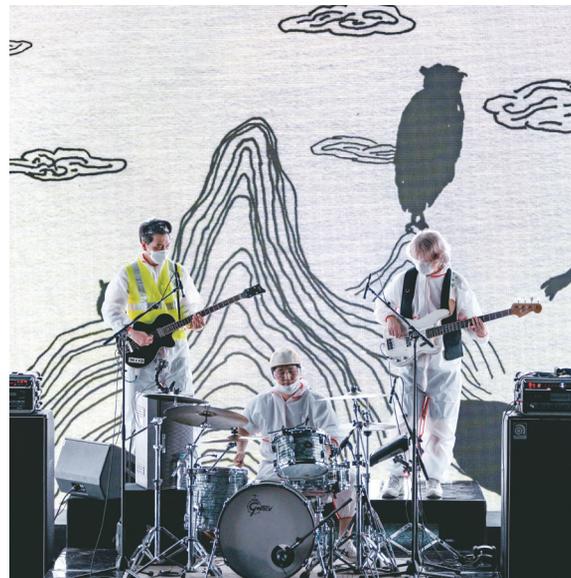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무용가 박명숙

22 작가의 방

오진이 기획자·전동민 한국화가



24 서울 할나

26 진실 혹은 대담

'재난과 장애예술' 라운드테이블

이슈 & 토픽

32 쟁점

조영남의 사기 혐의는 왜 무죄인가

34 화제

코로나19 시대의 무용예술 현장

공간, 공감

38 공간

홍제유연(弘濟流緣)

40 공감 1

뮤지컬 <제이미>와 <편향>

42 공감 2

전시 <폴리처상 사진전>과 2020 서울사진축제 <보고싶어서>

44 공감 3

책 <시선으로부터>, <화>와 <화이트 호스>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21

1987년 7월 11일 명동성당 뒷마당

48 정지우의 썰(說)

16가지 나와 너의 성격 유형 맞춰보기

50 서울 건축 읽기

내게로 오는 공원 ❹ 포이근린공원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유지영 감독의 <수성못>

WEBZINE+

56 웹진 [비유]

현재라는 수평

58 웹진 [연극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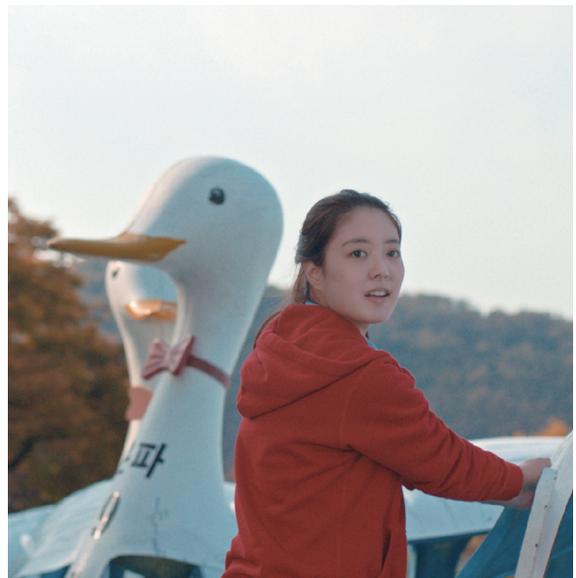
<입법극장> 5화 '다수결은 옳고 곧 민주주의다?'

60 웹진 [춤:in]

안무가 공영선

62 8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3D 미디어 경계,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예술의 움직임





이제 장르,
예술

다양한
탄생



예술이 경계를 넘나들며 '종횡'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번 테마토크에서는 경계를 넘어 새롭게 탄생하는 예술 형태를 알아본다. 최초의 '융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융합예술은 결국 시대와 함께 호흡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융합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 강연 프로그램 <커넥트 투 모로우(Connect TMRW)> 현장은 전문가의 통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동시대 예술의 융합을 이끌고 있는 예술가 4팀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융합'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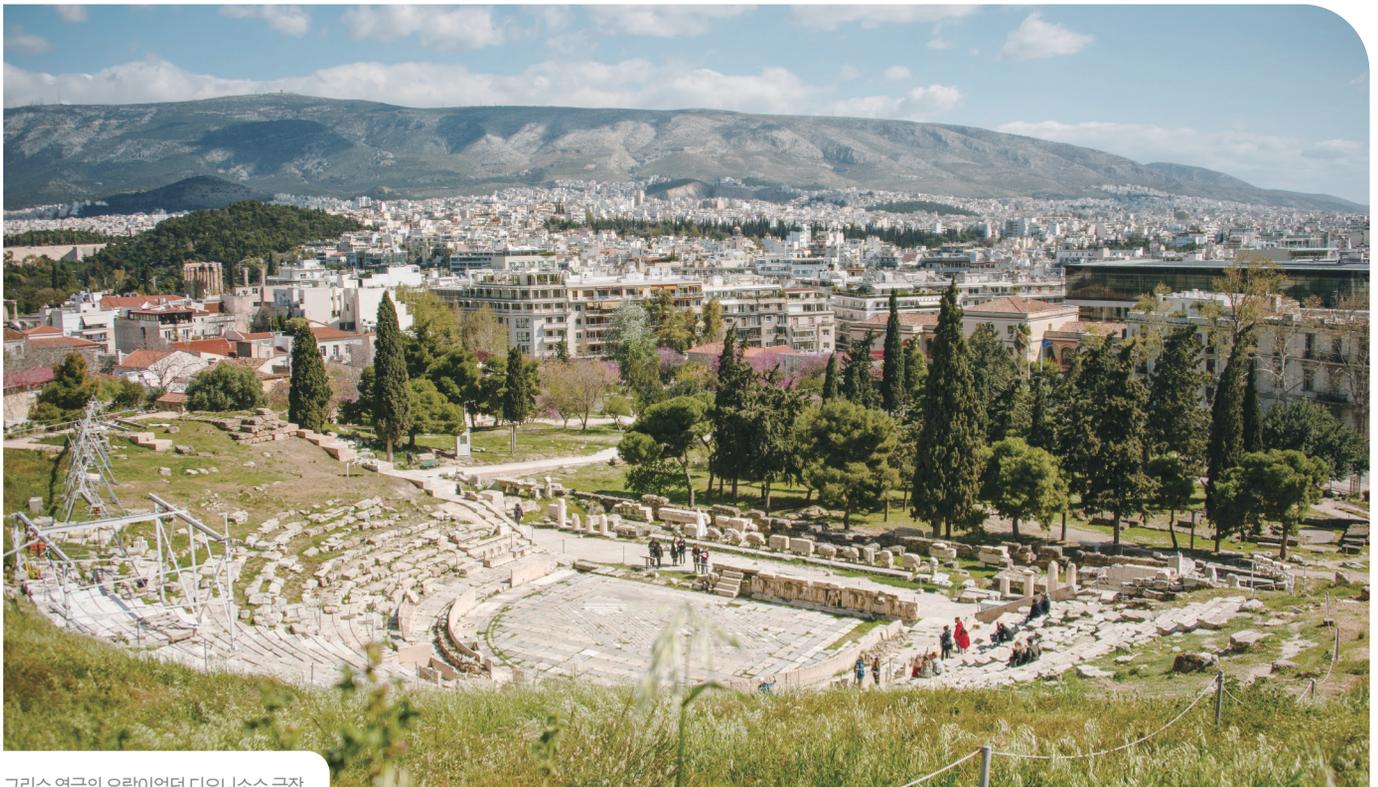
시대와 함께해 온 융합예술

융합예술의 흐름 짚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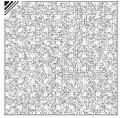
예술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는 거의 모든 시대마다 등장한다.

최근 등장한 '융합예술(融合藝術)'이란 용어는 동시대 새로운 예술의 지시어 가운데 하나다.

말 그대로 예술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연계해 새로운 방식의 예술 활동을 펼쳐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스 연극의 요람이었던 디오니소스 극장



현상적으로 예술계는 ‘융합’을 미래적 시선으로 욕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술과 예술, 예술과 기술, 매체와 매체, 기업과 예술, 인물과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융합이 시도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술에서 융합이 제기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 중세의 ‘연금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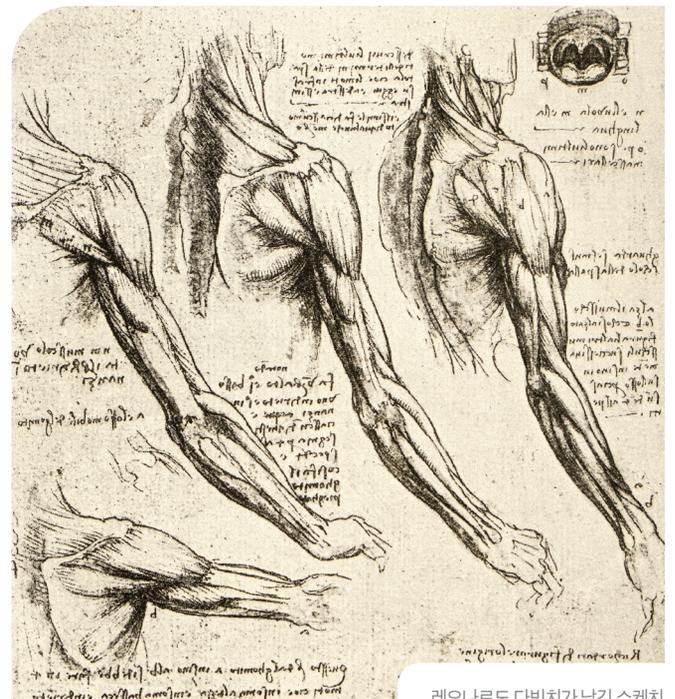
예술 개념의 역사에서 《순수예술의 발명(The Invention of Art: A Cultural History)》(Larry E. Shiner, Chicago University Press, 2001)이라는 오래전 사건은 오늘날 ‘융합예술’을 제안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예술(art)이란 용어는 테크네(technē)를 어원으로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배를 잘 만드는 조선술이나, 벽화를 잘 그리는 일이나, 춤을 잘 추는 것이나 모두 숨겨 있는 기술로 인정됐다. 고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신전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상연된 그리스 연극은 극장의 무대·합창대·의상·가면·연기·작곡 등이 총망라된 행사이자 총체예술로, 예술과 예술이 결합하는 융합 예술의 가장 오래된 사례다.

한편 중세에는 연금술(alchemy)과 같은 화학 기술로 인한 예술이 발전했다. 금은의 분리 정제술로 종교 패널화뿐 아니라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기도 했다. 단테(Durante degli Alighieri)의 《신곡(La Divina Commedia)》은 수사학의 예술로 형식과 비유도 그러한 일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예술가 스스로 융합적 사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드러내는데, 건축가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도 한 예다. 원근법을 활용한 표현뿐 아니라 금 세공기술, 조각, 축성, 기구 제작 등에서 탁월했는데,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돔이 대표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역시 원근법적 회화 공간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의학 및 해부학에 도움을 주는 무수한 스케치를 남겼다. 전쟁 시 화약 엔진·탱크·낙하산을 개발하고,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술·건축·수학·해부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 인물의 전형이다.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 중 융합적 성향을 드러낸 인물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를 빼놓을 수 없다. 시인·소설가·극작가·철학자·과학

자로 알려진 그는 식물학·해부학·광물학·지질학·색채론 등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익히며 자기 경험의 고백과 참회의 작업을 책으로 완성했다. 문학가로서의 저술뿐 아니라 과학적 연구가 돋보인 자연과학 논문을 남긴 융합적 사유의 인물이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음악에서 상대성이론의 영감을 얻은 일화로 유명한 과학자다. 흥미롭게도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추상 회화의 창시자로 음악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작품,〈즉흥〉〈인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세기 이전 융합적 태도의 예술이 사실상 사회 변화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됐다면, 20세기 이후는 과학기술이 예술의 융합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미술도 과학적 계기가 융합된 결과다. 광학과 색채 이론의 발달, 튜브 물감과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상주의자들은 과학자처럼 빛과 색을 관찰했고, 신(新)인상주의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보색 등 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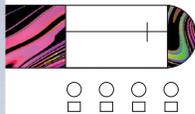
올리포르 엘리아슨의 〈Symbiotic seeing〉
(Kunsthaus Zurich, 2020, Photo by Franca Candrian)
(출처: olafurjasson.net)



올리포르 엘리아슨의 〈How do we live together〉
(Tate Modern, London, 2019) (출처: olafurjasso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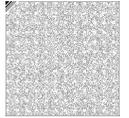
체 원리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기 이르렀다. 현대미술의 아버지 세잔(Paul Cézanne)의 회화는 중력의 법칙에 따른 일련의 재현 원칙에 회의를 표하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부합하는, 즉 단일 시점을 소거하는 방식의 융합된 예술을 선보였다. 이것은 미래주의의 동시성을 통해 시간을 포착하려 한 움직임과도 상통한다. 움베르토 보초니(Umberto Boccioni)의 회화와 조각에 드러난 시간성 포착의 제스처는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의 녹음 기술을 통한 시간의 재생, 음악 감상 방식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준의 확장 중인
예술과의 융합 영역



현대미술에서 과학과의 본격적인 결합은 마르셀 뒤샹(Henri Robert Marcel Duchamp)의 〈회전판〉으로 시작된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나무〉 시리즈에서 예고한 것은 시간성인데, 이것이 물리적 움직임으로 이어진 〈회전판〉은 ‘키네틱 아트’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후 1960년대 뉴욕의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1966)의 활동으로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이어진다. 예술가와 공학자 6천여 명이 참여한 다각도의 실험은 새로운 기술적 표현 가능성을 이끌었다. 이 그룹에 로버트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 앤디 워홀(Andy Warhol), 백남준,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등이 참여했다.

1960년대 E.A.T.는 백남준과 존 케이지(John Milton Cage Jr.),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가 활약한 플럭서스(FLUXUS) 그룹과 거의 동시에 활동했다. 사진·비디오·컴퓨터·자연·신체·음악·무용·강연·퍼포먼스 등으로 확장해 가며, 마침내 예술의 탈경계적·탈장르적 지평에 다다르게 됐다. 동시대 예술과 미디어아트는 ‘따로 또 같이’의 애매한 지형을 용인하며 예술과 기술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다. 도시와 연계된 페스티벌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Center Festival, 1979), 노마딕한 도시 연례행사로 학술과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Art, 1988), 새로운 미디어와 이론 및 실제 사회 예술, 고전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ZKM(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1997), 야마구치정보에



백남준의 <TV부처>(영상설치, 부처조각상, TV, 페쇄회로카메라, 컬러, 무성, 1974(2002))
(출처 백남준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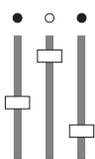


권병준 작가의 <자명리 공명마을>
(2019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술센터(Yamaguchi Center for Arts and Media, 2003)의 등장은 세계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들의 등장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 행보가 지속성을 갖고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최근의 나이트재단(Knight Foundation)이나 리좀(RHIZOME, 1996),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Google Creative Lab) 등은 실질적인 예술과 기술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리좀은 다양한 형식으로 디지털 예술을 보존할 시스템을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다. 한국의 경우, 이 같은 미디어아트의 급성장을 비엔날레라는 제도로 보여주고자 했다. 2001년 제1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송미숙 감독)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며, 아트센터 나비(2001), 서울문화재단 다빈치 크리에이티브(20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T페스티벌(2015) 등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볼 때, 20세기 예술과 기술 융합의 대표 작가는 백남준이다.

서구 미술사에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로 짧게 기술되지만, <음악의 전시회: 전자 텔레비전>(1963)를 필두로, TV로봇 시리즈, 일련의 퍼포먼스, 레이저 아트에 이르기까지 그는 융합예술의 본령이다. 동서고금의 자양분과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그의 모든 작업은 총체예술이자 융합예술이다. 그의 사후, 미디어의 재매개화는 지속되고 있고 VR·AR·MR·AI·블록체인·로봇릭스 등의 예술과 기술의 협업, 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융합예술,
동시대에 질문하고 답을 구하다**

마지막으로 동시대의 가장 강력한 예술가로 주목받는 이들의 작업을 살펴으로써 융합예술의 의미를 환기하고자 한다. 거미와 행성의 작가로 알려진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는 건축·환경학·천체물리학·열역학·생명과학·항공 엔지니어 등의 학문적 통찰과 연구가 반영된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그의 작업 <Cloud Cities>는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에 대한 물음을 통해 발견되는 모든 것을 알아가고 해결하는 방식이자 결과로서 융합예술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융합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예술가로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빛·바람·수증기·얼음·물·불 등 자연의 물질들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특별한 환경과 체험을 제시한다. 그의 <The Weather Project>나 <Beauty> <Moss wall> 등은 모두 빛을 활용하고 자연을 재창조해 내는 융합예술의 전형적 과정이 내재된 작품이다.

이처럼 동시대 예술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융합의 생생한 지점에 있다. 다만 이것의 경계를 가르거나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융합예술이란 명칭도 사실 대안적인 표현일 뿐이다. 예술의 융합은 별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사회 현실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며 실현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글 박남희·예술학자, 미술평론가

융합예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강연) 프로그램 <커넥트 투모로우>

커넥트 투모로우 '현장 강연' 스케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예술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여 미래 예술의 창작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고민하다.”
<커넥트 투모로우(Connect TMRW)>는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TF팀이 융합예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교육(강연) 프로그램이다. 사회학·생명과학·미디어아트·기계비평·사운드아트·현대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며, 프로그램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하는 '현장 강연' 4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비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 4회, 융합예술 관련 기획자·창작자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파티' 2회로 구성됐다. 올해로 2년째이며 지난해는 '융합예술 아카데미 <융합창작소 2019>'란 이름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현장 강연(8~29일, 매주 수요일)이 진행됐다. 융합예술의 창작과 적용 사례를 통해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본 자리로, 여운승(베이스리스트·미디어아티스트·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안은미(현대무용가·안무가), 김제민(연출가·미디어아티스트·서울예대 공연창작학부 교수), 김태윤(현대자동차 스페이스크리에이션팀 책임 매니저)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음악의 미래: 감각의 전이, 지능의 확장' '장르 그 자체가 된 안은미의 융합적 작품세계' '매체융합으로 확장하는 예술: 극장에서 인공지능까지' '기업과 예술의 만남,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를 강연했다.

1·2회 차 강연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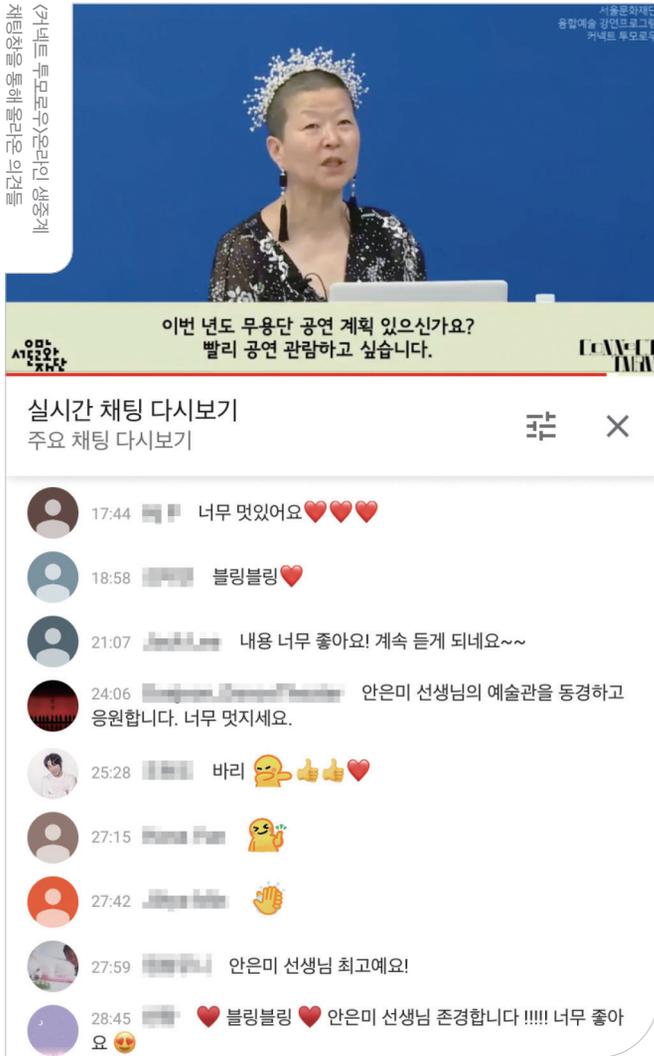
7월 8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여운승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지점은 강의 초반 그가 말한 “자신이 상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 예술이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체가 필요하며, 매체의 대부분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음악의 유통 매체가 LP, CD, MP3, 실시간 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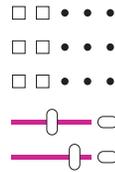
‘음악의 미래: 감각의 전이, 지능의 확장’을 주제로 강연한 여운승 교수



커넥트 투모로우(온라인) 생중계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의견들



밍 서비스로 변화하며 곡의 길이와 표현 방식이 달라졌다. 매체(기술)의 변화는 예술의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었다. 논의는 점차 확대돼 음악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감각의 전이와 확장으로 이어졌다. 또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며 인간의 활동만을 예술로 보는 기존 정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질문을 던져준 지점도 있었다. 강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된 자료에는 그가 연출한 작품도 있었는데, 덕분에 학자뿐 아니라 예술가의 면모도 엿볼 수 있었다. 2시간 남짓한 강연을 통해 예술(음악)과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과



거와 현재를 알 수 있었고, 강연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미래 예술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추측해 보기도 했다. 현장 참가자 박수인 씨에게 소감을 묻자 "저는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음악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됩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분이 정리돼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강연하신 선생님께서 실제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좀 더 와닿는 지점이 많았습니다."라고 강연에 만족감을 표했다.

15일 안은미컴퍼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안은미 안무가의 강연은 융합예술TF팀의 이정훈 팀장이 질문을 던지고 안은미 안무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은미×문화, 안은미×패션, 안은미×미술 등 '안은미×○○'라는 강연의 주주제가 보여주듯 안은미와 어떤 요소가 만나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다는 것이 강연의 골자였다. 그가 해 온 그간의 작업이 이를 증명해 주었다. 인상적인 부분은 강의 막바지 즈음 '사람'과 '또아리' 등을 키워드로 얘기해 준 지점으로, 이 대목에서 그의 융합적 행보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현장 직접 관람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현장 인원을 최소화해야 해 참가자 수도 제한을 두었다. 그렇지만 온라인 생중계 덕분에 실시간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었고, 매회 강연별 동시 접속자수가 100여 명 정도라 하니 이 인원이 실제 현장에 참여했다면 좀 더 뜨거운 분위기에서 강연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본지 제작 일정상 3·4회 차 강연을 지면에 담을 수 없는 점은 아쉽다. 필자는 마감 후 원고 작성과 관계없이 강연을 보기도 했는데, 앞선 1·2차 강연 못지않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다. 진행된 강연은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스피크TV에서도 볼 수 있으니 융합예술에 관심 있거나 혹은 새롭게 관심이 생겼다면 다시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예술의 경계에서 승화되는 예술

시대를 이끄는 예술가 4팀

경계의 줄넘기가 자유로운 예술가(팀)들을 만났다.

알오티씨(ROTC), 태싯그룹(Tacit Group), 이날치, 서도밴드(sEODo BAND)가 주인공.

인터뷰는 '예술의 융합'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팀 소개 2 작업 활동 3 향후 (작업) 계획 4 예술의 융합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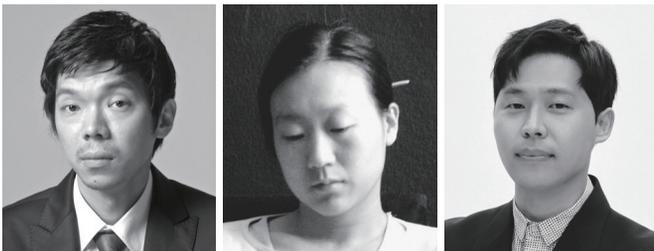
로봇을 활용한 메커니컬 시어터
알오티씨(ROTC)



권병준(음악)·이민경(무용)·최장원(건축)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컬렉티브다. 연극·무용·음악 등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메커니컬 시어터(Mechanical Theater)'의 가능성과 무대의 새로운 언어 탐구를 통해 관객에게 낯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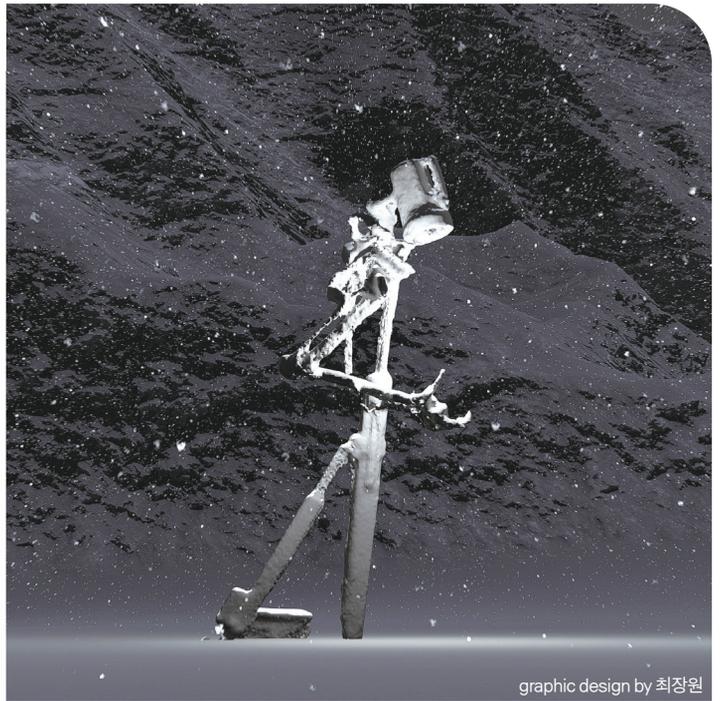
1 알오티씨(ROTC)는 Robot Theater Company의 약자이며, 로봇을 활용한 메커니컬 시어터(Mechanical Theater) 작업(로봇극)을 하는 팀입니다. 메커니컬 시어터의 전통은 18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기어로 이루어진 미니어처에 군주·농부·상인 등의 역할을 부여해 그들이 상상하고 꿈꿔온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현대에 이르러 미니어처는 로봇이 됐으며 더불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알오티씨는 예술성에 좀 더 집중한 메커니컬 시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여러 대의 로봇은 기계화한 무대장치, 다양한 연출 기법 등과 합을 이루어 동시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2 올 초 플랫폼엘에서 로봇 연극 <짜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2: 로보트 야상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구성원의 협업이 빛을 발한 작품으로 이민경 안무가는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고민을, 최장원 건축가는 무대 공간 구성과 조형물(기계화한 무대장치 등)의 제작을 맡았고, 권병준 작가는 총괄 연출을 맡아 극의 시나리오를 쓰며 로봇을 구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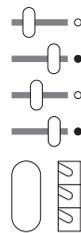


〈싸구려 인조인간 노랫말2: 로봇 아상곡〉
공연 실행 장면



는 프로그램과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완전한 주기를 상징하는 수 '12'를 연상시키는 12대의 인조인간 로봇이 등장하는 유니버스 형식의 로봇극으로 공연 시간은 60여분입니다. 연극은 메커니컬 시어터와 그림자극이 어우러지는데, 그림자극은 이집트 신화의 구절인 “모든 살아 있는 것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태양신 라가 있고, 라로부터 살아 있는 것들은 빛을 받아 그림자를 가지게 된다”를 모티프로 연출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다문화가정·난민·부랑자·노숙자 등), 이전의 작업들(권병준 작가가 서울광장스크린에서 연출한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등), 1990년대 흥대 인디 신에서 밴드 활동을 함께한 동료들의 모습(권병준 작가와 함께 활동한)이 극의 주제, 연출 기법, 로봇 역할의 모티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3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10월경 문화비축기지에서 전시를 겸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공연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로봇이 등장하는 장면, 사람과 로봇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 등으로 구분됩니다.



4 협업을 예로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협업의 주체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이질적 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야 합니다. 본인의 영역을 들이민다거나 자신이 전문성을 띤 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가 들어오길 강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알오티씨의 구성원은 (예술의) 영역의 한계와 경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분야와 결합했을 때 나오는 상생의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예술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움의 탄생은 경계가 맞닿은 지점에서 만난 당사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결정할 것입니다.

알고리즘 아트를 중심으로
예술의 경계를 걷다
태싯그룹
(Tacit Group)



장재호와 가재발(본명 이진원)로 구성됐다. 첫 단독 공연 tacit.perform[0](두산아트센터, 2009)을 시작으로, 뉴욕 링컨센터·시카고 현대미술관 등 미국 초청 투어(20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초청 공연(2013), 10주년 기념 공연 tacit.perform [6](플랫폼엘, 2018), ISEA(국제 전자예술 심포지엄) 초청 공연(2019) 등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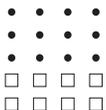
1 태싯그룹은 2008년에 결성됐고, 장재호와 가재발(본명 이진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재호는 클래식 음악을, 가재발은 테크노 음악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데, 태싯그룹을 통해 이 둘은 중간 지점의 예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태싯(Tacit)’은 침묵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태싯그룹은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존 케이지의 작품 <4'33''>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름입니다. 태싯그룹은 알고리즘 아트(Algorithmic Art)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극대화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알고리즘 아트가 관객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을 종종 받기에, 태싯그룹은 관객의 공감과 이해를 최대한 끌어내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요소들이 그 시스템을 조정해 결과를 만들게 하는데, 이는 처마에 달린 풍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가 나는 것처럼, 창작자의 역할은 풍경(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며 실제 음의 조합은 바람(주변 요소)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시스템은 매우 기계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태싯그룹의 작품은 이러한 확정성과 즉흥성의 경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걷습니다.

태싯그룹은 작품을 만들 때 결과보다 과정(process)을 더 중요시합니다. 창작에서 과정, 방법, 매체의 변화는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철로 집을 짓는 것은 단지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상상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창작 과정에 더 집중하는 것은 여태껏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창작의 모티프는 다양한 곳에서 얻습니다만, 주로 과학과 기술의 다양한 주제에서 얻습니다. 단순한 수의 개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같은 알고리즘, 유전학 같은 과학의 주제, 테트리스 같은 컴퓨터 게임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태싯그룹의 작품으로는 <훈민정약>과 <게임오버>가 있습니다. <훈민정약>은 한글의 글자가 곧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창제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글자를 입력하면 그것이 곧 음악을 만드는 작품입니다. <게임오버>는 테트리스 게임판이 하나의 악보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연주자는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게임판에 쌓인 블록 형태가 선율과 리듬을 결정합니다.

3 오디오비주얼 설치 작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세 작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 초 회현동 피크닉(Piknic)에서 진행한 전시 <op.sound[piknic]>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신작도 작업 중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접목을 시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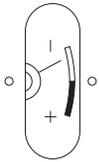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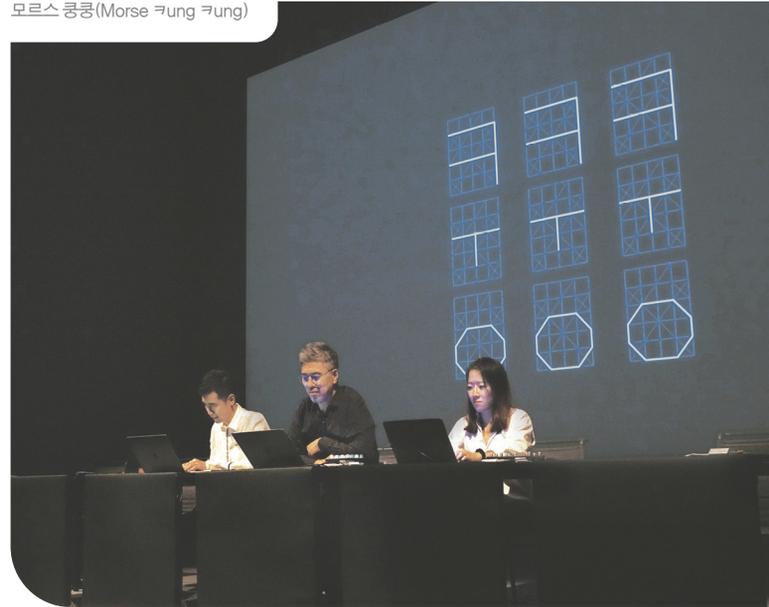
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작품들과는 결이 좀 달라서 상반기부터 이 작품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10월경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글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실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분야의 협력, 융합 프로젝트 등은 시대에 맞는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좋은 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내 안의 융합'으로부터 시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나와 너의 협력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안에서 충분히 다양한 분야와 장르가 합쳐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충분한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나와 너의 융합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모르스 쿵쿵(Morse Kung Kung)



이날치

현대악기밴드



장영규·정중엽(베이스), 이철희(드럼), 권송희·신유진·안이호·이나래(소리)로 구성됐다. 진행한 공연으로 국립극장 2020 여우락 페스티벌 <들썩들썩 수궁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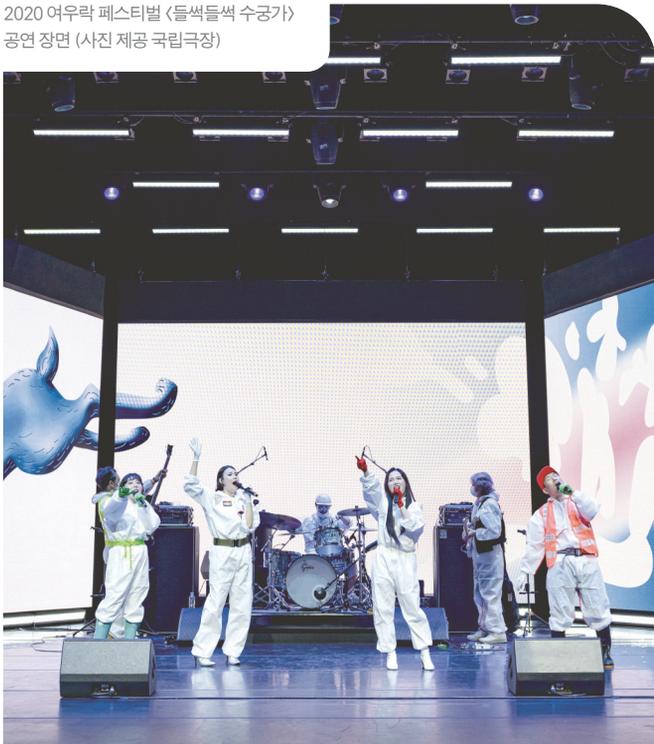
1 처음 이름을 정하던 시기에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었고(30개가량의...) 2차,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이날치가 선정됐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날치(1820~1892)는 판소리 명창으로,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음악관이나 인생사도 워낙 드라마틱하지만 그냥 글자로서의 '이날치'가 갖는 생경하지만 무겁지 않고, 발랄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자체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독특했죠.

이날치의 전신이라고 할 것은 딱히 없지만 시작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작의 음악극 <드라곤 킹>이라는 공연을 위해서였습니다. 작품은 극 형식이었고, 음악도 밴드 편성이 아닌 만들어진 반주에 '수궁가'를 하는 식이었죠. 생각보다 음악이 더 잘 나왔고, 연습도 할 겸 음악만 가지고 공연하기로 결정했는데, (극 형식이 아닌 공연을) 만들어진 반주에 노래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 밴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편성이 갖춰졌습니다. 지난해 1월의 일이죠. 공연은 예상 밖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고, 그해 5월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름도 정하고 나름대로 밴드로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 '얼터너티브 팝 밴드'로서 얼마 전 1집 <수궁가>를 발표해 활동 중입니다. 앨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판소리 <수궁가>를 소재로 만든 댄스음악이 가득 담겨 있죠. 음악적으로 다양한 장르가 뒤섞여 있지만 그 모든 흐름을 아우르는 한 가지를 꼽자면 그건 '들썩들썩, 움짤움짤' 춤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꾼들이 전면에서 노래하고 그 노래가 판소리 <수궁가>이다 보니 전통, 국악, 판소리가 쉽게 눈에 띄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느 한 요소에만 매몰된 시각으로 이날치를 재단하려는 것은 음악에 대한,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각자 좋아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베이스의 울림·드럼의 비트·소리꾼들의 목소리 중 어느 것 하나에 무게중심이 쏠려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지금 이날치의 음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치는 국악의 현대화·세계화 같은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있을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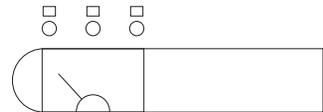
2020 여우락 페스티벌 <들썩들썩 수궁가>
공연 장면 (사진 제공 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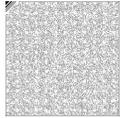
이날치의 11곡이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들어보시고 '내' 귀가 솔깃하다면 그 곡이 대표곡들이 아닐까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취향이 바뀌는 '내' 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연 연출을 위해선 지난 공연 영상을 보며 함께 모니터링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을 준비하면서는 현대무용을 하는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를 찾아가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라든지 리듬을 타는 호흡 같은 것을 가볍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창작의 모티프는 구성원 서로에게 얻습니다. 각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고 섞어보고 붙여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낸 결과가 첫 앨범 <수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을지로에 위치한 '신도시'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올해로 5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8월 1일에 이날치도 그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공연이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 형식이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아직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공연이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비대면 공연이 가진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실험해 보려 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4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융합'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역사에 존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예술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람입니다. 장르 간의 간섭과 융합은 장르와 장르가 만났다기보다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즐거운 사람과의 즐거운 작업이 결국 장르와 장르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변주하는 조선팝
서도밴드
(SEODO BAND)



서도(보컬)·김성현(키보드)·연태희(기타)·김태주(베이스)·양정훈(드럼)·박진병(퍼커션)으로 구성됐다. 정동극장 '청춘만발 페스티벌'(2019), 남원 춘향제 초청 공연(2019), 일본 OTAKANOMORI HALL 'Special night concert' 등에서 공연했다. 2019 KBS 국악신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 서도밴드는 2018년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퍼커셔니스트 박진병이 대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활동하자고 제안했고, 보컬 서도(서재현)를 포함한 4명이 어쿠스틱 구성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후 좀 더 다양한 서도밴드만의 음악을 하고자 풀 밴드 구성으로 대열을 갖춰 활동했고, 현재는 보컬 서도를 주축으로 6명이 됐습니다. 서도밴드를 영어로 표기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가 뒤엉키게 sEODo BAND라 쓴 것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서도밴드가 많은 분께 각인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 서도밴드는 '조선팝'을 만든 밴드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조선팝은 전통음악(국악)의 특징이 팝적인 요소와 적절히 혼합돼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데, 5살 때부터 판소리를 공부한 소리꾼이자 대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한 서도가 곡을 만들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 전통음악과 팝 음악이 뒤엉킨

형태다 보니 퓨전음악(퓨전국악)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팝을 국악의 구성으로 풀었다거나, 반대로 국악의 노랫말을 팝의 멜로디로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조선팝은 서도밴드 구성원의 개성이 한데 어우러져 탄생한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대표곡으로 <아리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국악의 '길국악 장단' 그루브를 기반으로 해 남과 북의 한민족이 함께 노래하고픈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 외에도 판소리 '춘향가'의 대목인 <사랑가>와 <이별가>가 있으며 이 곡들 역시 서도밴드만의 색이 입혀져 기존 곡과 전혀 다르게 재창작된 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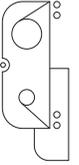
공연할 땐 보이는 모습에도 신경을 씁니다. 의상은 기성복이지만 동양의 미가 드러날 수 있게 선을 강조한 의상을 선호하며, 공연 중간중간 손짓과 몸짓을 활용하는 발림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공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니 더욱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3 앞으로 나올 서도밴드의 음악은 기존에 알고 있던 서도밴드의 음악과 다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서도가 오랜 시간 국악을 공부했기에 어떤 음악을 해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요소가 깔리지 않을까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판단은 음악을 보고 듣는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오는 8월과 9월에 새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중파 음악 방송에 출연하고 싶기도 한데요,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하자면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가고 싶습니다.(웃음) 더욱 다양한 음악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싶고, 특정 이미지로 서도밴드의 성격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예술이 장르와 경계를 넘어 결합하고 융합하는 일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예술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인간의 감각이 기존 공식과 다르게 작용한다면 더욱 그럴 테고요. 지금껏 알고 있던 예술이 아닌 다른 형태가 예술이라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상상만으로 가슴 뛰는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각 팀 및 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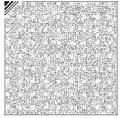


사람과 사람
문화인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

무용가 박명숙





나에게 어울리는, 나만의 춤을 추겠다는 꿈은
그녀를 현대무용의 길로 나아가게 했고,
모든 이들의 일상 속에 예술이 숨 쉬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은
더 넓은 세상에 다다르게 했다.
나이가 믿기지 않게도 여전히 꿈을 꾸는 데는 비결이 있을 터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초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면 선대의 경험을 추측하려 노력한다. 그때는 어땠을까, 그 시절에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하게 됐을까. 기록으로 남겨진 과거는 그들의 행적을 낱낱이 증명하지만 당시의 생각까지는 미처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무용 1세대’ ‘무용가 출신 대표이사’ ‘최연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같은 화려한 이력과 나란히 이어지는 작품 목록에 감탄을 넘어 의문까지 들었다. 흰 종이에 가득 채워진 까만 글씨가 치열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마주 앉은 이의 표정은 너무나도 말쑥했다. 칠순을 앞둔 예술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네 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무용을 했어요. 제가 6·25 전쟁 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죠. 걸음마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용이었어요. 국립국악원에서 무용을 배웠고, 그림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받았죠.”

피리 연주자이자 무용가로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사까지 지낸 김보남에게 한국무용을 배운 박명숙은 진명여자중·고등학교에 진학해 김정옥에게 발레를 배우게 된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장르와 미술·음악 등을 접한 덕분에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새로운 춤이 있다고 해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그게 현대무용이었어요. 내가 이런 춤을 춰야 나에게 맞는 예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스스로 조속했다고 회상하는 어린 시절, 박명숙은 이미 만들어진 예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예술이 하고 싶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창 배운 발레는 서양인에게 적합하고 익숙한 춤이었기에 “내게 어울리는 춤”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창작으로 이어졌다. “내 춤은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것.

“현대무용을 처음 접하고 ‘이거다’ 싶었죠. 연습을 열심히 해서 테크니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일찍부터 없었어요. 나만의 새로운 작품, 한국인인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춤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 예술가의 역할이 아닐까?”

호기심 많고 탐구하기 좋아하는 박명숙의 예술 활동에 화력을 더한 건 친구들이었다. 대학 시절 만난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창작 활동에 열을 가했다. 그녀가 공연을 올릴 때면 첼로를 하는 친구가 무대에서 실황으로 연주를 더했고, 미대를 다니는 친구는 공연 의상을 만들어 선물했다. 그녀 역시 이들의 연주회와 전시회에서 퍼포먼스를 펼쳤다. 함께 어울린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창작 작업에 자극을 주는 이들이다.

1978년, 서른을 앞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딴 박명숙댄스시어터를 창단했다. 그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무용단으로 기록되는 컨템포러리무용단의 창단 멤버로도 활약해 온 그녀는 쉼 없이 작품을 발표했다. 소품에서부터 장편 작품까지 지금까지 안무한 작품이 300여 편에 이르고, 그중 주요 레퍼토리는 수십 년 동안 재공연을 반복하고 있다.

“1993년에 소설 〈혼자 눈뜨는 아침〉을 바탕으로 안무한 작품을 발표했어요. 소설 속 주인공이 당시에 저와 같은 나이였는데, 마치 주인공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당시 이 소설이 출간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무용 작품으로 발표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춤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고마운 계기가 됐죠. 꽤 장기간 공연했어요.”

작품에 스며든 문학적 감성은 그녀의 예술 세계를 대변하는 키

워드이기도 하다. 1980년에는 공간사랑에서 월례로 진행된 ‘현대무용의 밤’ 무대에 오르며 1980년대에 활발했던 소극장 운동에 힘을 더했고, 일반인들에게 현대무용을 알리는 데도 힘 썼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환상적이고 꿈에 나올 법한 이야기만 다룬다고 저를 ‘판타지 박’이라고 부르기도 했죠.(웃음) 특히 김영태 선생님의 시와 작품 제목을 두고 만든 작품이 많았어요. 30대까지 그랬고,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생각이 많이 성숙해졌죠.”

고전적인 어머니상을 그려낸 <에미>(1996),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룬 <유랑>(1999)과 고구려 건국 신화 시리즈 <황조가>(1991) 등은 한층 확장된 그녀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여성으로서의 삶과 애환을 다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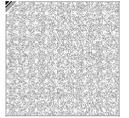
이 작품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꾸준히 공연되며 근래 들어 변화해 온 우리 사회에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증조할머니서부터 저까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이라는 정원에서 여성이 살아온 흔적과 생각을 모아 만든 게 <에미>예요.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공연할 때도 반응이 너무나 열광적이었어요. 피부색이 달라도 생각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1990년대에 탄생한 작품이 20년이 지나서도 유효한 건 우리네 어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꿈꾸는 생을 위한 ‘우리 삶의 예술’

무용가로서의 시간만큼 박명숙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시간이다. 1981년 경희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2015년 정년 퇴임하기까지, 이전의 중·고등학교 교사 시





절까지 합하면 어언 4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해 왔다.

“저는 제자들에게 ‘이건 아니다’ ‘이건 하지 말아라’ 한 적이 없어요. 제 부모님 역시 제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요. 1981년, 교수가 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무용을 할 필요 없다. 무용과를 졸업한 학생 전부가 무대에서 춤을 춘다면 공연 기획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용을 전공한 이들의 직업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무용은 한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잘하면 이론을 가르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좋아하면 무용을 기반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교육이 있고,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어요. 무엇이든 가능하죠.”

무용을 중추로 삼되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지향점이라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예술을 경험하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은 기획자이자 행정가로서의 목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남아트센터 대표이사를 지내며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클래식 음악에 기울어 있던 공연 역시 다원예술부터 연극·무용·어린이극까지 기획의 다양성을 보강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한 것은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이다. 접근해 보지도 않고 우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용 공연에 관객이 없다고들 하죠. 대부분 무용이 특별한 부류나 관심을 갖는 것이지 나오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움직여봐야 춤이 무엇인지 알고, 관심을 갖게 돼야 공연도 보러 오겠죠. 누구나 춤을 출 수 있어요. 춤을 춘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움직임을 만드는 건데, 그 움직임이 탄생하는 과정을 어릴 적부터 즐긴다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예술이 스며들 수 있겠죠.”

그러곤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직접 예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예술로 받아들이는 ‘우리 삶의 예술’ 말이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랄까요. 추함까지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을 누구나 갖고 있

“움직여봐야 춤이 무엇인지 알고,
공연도 보러 오겠죠.
춤을 춘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어야 해요.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죠. 모든 일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1980~90년대에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막달라 마리아’가 붙어 다녔다. 1974년 초연해 무려 40주년 기념 공연까지 연 육완순 안무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달라 마리아 역할로 20년간 무대에서 서면서 얻게 된 별명이다. 그 후로도 수많은 수석어가 그녀와 함께했다. 정년을 지난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용 전도사’라고. 너무 종교적인 단어라 별로인데.(웃음) 일반인이 무용을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전 국민이 움직임을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는 해에 그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열고 싶어요. 조금 조금 할머니가 생기 넘치게 춤추면 얼마나 멋질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무대를 상상하는 말간 표정... 어릴 적 꿈 많은 소녀 박명숙의 얼굴이 교차했다.

“저는 매일매일 꿈을 꾸요. 이 나이에 꿈꾸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2003년에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전까지 수천 개의 대바늘이 매일매일 온몸을 찌르는 듯 아팠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니 살아 있는 매 순간이 감사하더라고요. 이후의 생은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연출할까 생각하죠.”

글 김태희·객원 편집위원, 무용평론가 사진 서울문화재단

조건 없이 예술가 돕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잠시 목이라도 축이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예술가를 돕기 위한 후원 캠페인 ‘오아시스 딜리버리(배달)’를 처음으로 시작한 오진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초부터 전국을 강타한 전염병은 사회·경제·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능을 멈추게 했다. 특히 확산을 막기 위해 몇 주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은 각종 공연과 전시를 줄줄이 취소시키거나 하반기로 연기시켰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어려움에 빠진 예술가를 돕기 위해 긴급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500건 지원에 5,000건이나 몰려 서울문화재단이 긴급하게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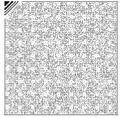
그런 위기의식 때문이었을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 어려움에 빠진 동료들을 돕기 위한 십시일반 릴레이 후원을 시작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페이스북에 ‘#오아시스딜리버리’라는 태그를 걸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10만 원을 보내면 된다. “글을 올리자마자 후원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 만에 400만 원이 모일 정도니까요.” 그렇게 모인 금액은 한 예술단체와 25명의 예술가·기획자에게 보내졌다. 돈을 받은 이에겐 얼마나 힘드냐고 묻지도 않고 오직 계좌번호만 물었을 뿐. 게다가 누가 지원받았는지도 알리지 않았다. 이후 분위기는 온라인을 타고 삼시간에 확산돼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아이스버킷챌린지처럼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캠페인에 오 씨가 진짜로 바라는 바를 이렇게 고백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있듯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도 면역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진이 기획자



오진은 1985년 KBS 신인방송작가 공모에 당선돼 방송작가로 활동했고, 국립극장을 거쳐 서울문화재단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예술현장 실무 매뉴얼 시리즈, ‘문화가 있는 놀이터’ ‘문화는 내 친구’ ‘예술로 충전해요’ ‘문화예술철도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주고 싶어요.”

한 해 매출만 30억 원이 넘는 각휴지 표지 작품 공모에 선정된 한국화가 전동민 작가가 밝힌 소감이다. 공모를 연 곳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늘푸름보호작업장. 사업 취지에 맞춰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 분야 창작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전 씨를 선정했다.

그는 5살 때 40도가 넘는 심한 열병을 앓고 청력을 잃었는데, 현재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졸업 이후 한때는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웹 개발자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래도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며, 이제는 전업 작가로 나섰다. 선정된 작품들을 언뜻 보니 ‘이상’을 꿈꾸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을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그린 〈서울전경〉(2015)이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 〈다른 세상〉(2015)이 그렇다. 그가 동경하는 또 다른 세상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청각장애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성인이 되면서 유년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일에 더욱 몰입했다. 5살 때 열병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된 기억 때문인지 한때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작품만 고집했고, 이후엔 어두움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야경을 그렸다.

“너무 힘들고 죽을 거 같던 지난 시간을 치유받고 싶었어요. 명암의 경계가 모호하듯이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지에 다양한 물감을 채색하는 동양화를 그리는 전 작가는 앞으로 밝은 느낌의 그림 그리기에 더욱 몰두하고 싶다고 전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

전동민 한국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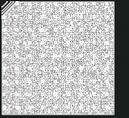


전동민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공부했다. 개인전으로는 〈야경, 삶과 죽음의 경계〉(2016), 〈서울, 야경 그리다〉(2017), 〈도시풍경이야기〉(2018), 신한갤러리 기획전 〈OURSTORY3〉(2019), 단체전으로는 〈무무 입주작가 기획전〉 〈유플러스 5G 기획전〉 〈영은미술관 3기 프로젝트 선정 작가전〉 등이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2010)을 수상했다.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팔월 태양은
정수리 위
남중고도(南中高度)
허기진 독수리가
수직 하강하듯
혼비백산(魂飛魄散)할 더위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해를 서쪽으로
비껴 밀치면
모든 게
차갑게 식는 법
그때 즈음은
사위(四圍)가
눈에 들어오는
축복의 녹색 왕국

<청계천 9가 존치교각>
글·사진 김영호·서울문화재단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을 위하여

‘재난과 장애예술’ 라운드테이블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인 전문 창작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을 장애예술인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장애예술인이 안전하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예술가와 장애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장애예술인과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위치에서 겪은 사례를 나누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재단은 장애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창작공간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필요한 것을 해나갈 계획이다.

- 일시** 2020년 7월 3일(금) 오후 4~6시
- 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 사회**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발제** 문승현 작가(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 사례발표** 박은선 창작그룹 리스튜디오 대표
- 토론** 김환 작가(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현 11기 입주작가)
김승수 핸드스피크 배우, 영화감독
김용우 안무가, 한국장애인무용협회 회장
김원영 변호사, 연극배우, <같이 있는 가치> 기획단

발제 재난과 장애예술

문영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예술인들의 피해는 장애로 겪는 일상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중첩돼 더욱 클 것입니다. 어떻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전 입주작가인 문승현 작가님께서 ‘재난과 장애예술’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문승현 과거 재난은 자연과 인간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신의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면서 어떻게 살아남고 문명을 발전시킬지 고민해 왔다면, 현대의 재난은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재난을 당하는 피해자였고, 재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인간이 스스로 재난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향후 100년간 약 1.1~6.4°C 정도까지 급격하게 오른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면 앞으로도 평균기온은 계속 오르고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재난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인간 스스로 재난을 발생시키면서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이 공동체를 결속했지만 지금의 재난은 계속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한 노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장애예술은 경제위기에 취약합니다. 상업적인 자본 축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원금을 받고 작업하는 이유는 상업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오히려 예술가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예술이 다른 방법과 표현을 찾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영민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근본 원인을 알게 해주는 발제였습니다. 이어서 리스튜디오 박은선 대표님께서 장애포괄 재난대응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례 발표

장애포괄 재난대응 프로젝트

박은선 기본적으로 재난 관리의 4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연결된 서클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이 중요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난 회복력(resilience)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가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바우만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본 자들을 '부수적 피해자'라고 명명했는데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가난한 흑인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동일본대지진 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5배 더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한 곳 중 하나가 정신병동이에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프로젝트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 때 대부분의 장애인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포항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휠체어 타는 분들에게 계단 문제는 기본적인 거죠. 119 구급대에서도 구하러 안 왔고요. 활동지원사가 없는 새벽에 지진이 나서 고탄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피소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으니 장애인은 아무도 못 왔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보통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서 구하러 올 친구나 이웃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활동지원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문제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1995년 한신대지진 때도 친구가 있는 장애인들은 누군가 구하러 왔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도 대피소에 장애인이 없었어요. 특히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쓰러지고 지붕이 뚫려 있는 집에 그냥 계셨대요. 좋은 사례는 지진이 나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먼저 구하러 오고, 같은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이 다 알아서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일본은 분리교육을 확실히



하게 하다 보니 초등학교에 배리어프리가 없어서 대피를 못 했대요. 결론 중 하나는 국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워크숍은 주로 서울에서 했는데요. 시나리오를 쓰는 워크숍에서는 갑자기 강의실에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지 상황을 주제로 내놨어요. 직접 대피하는 워크숍도 진행해 봤고요. 한두 번 해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시나리오를 같이 써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소에 맞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물마다, 건물에 있는 장애인마다 유형이 다르고 장애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실상 통합 워크숍이나 통합 재난 매뉴얼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해요. 8월부터는 노들장애인야학과 개개인의 장애유형별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연말에는 연세대 학생들과 청각장애인용 재난 대비 워크숍도 개발할 거예요. 장애대학생은 청각·시각·지체장애가 대부분이어서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합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를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휠체어 경사로는 필수고요. 자동 유리문은 비상시에 안 열려서 위험해요. 또 지하 철역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 '재난과 장애예술' 라운드테이블 현장

문영민 저는 학교나 회사에서 재난 훈련을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워크숍이 더 많은 공간에서 진행되고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도 이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회적 관계망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분의 장애 예술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저는 선천적 장애인이다 보니 태생 자체가 비장애인들과 달랐어요. 어릴 때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치료 과정이 길어져서 10대 시절 경험의 기회가 적고 한정적이었어요. 대학을 간 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 협소하고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교육을 받을수록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흥미를 느낀 지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은 서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로는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 당사자가 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20대에는 저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와서 다른 작가들을 보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의 과정이 다 다르고 정말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기 때문에 공감에 있어 만족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뒤로는 목표와 차별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공동창작워크숍에 선정되어 비장애인 작가들과 협업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분야와 전공, 살아온 것, 작업 방향까지 너무 달랐지만 공통점을 하나 찾은 게 작업에 대한 노동성이었어요. 직접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식의 몸으로 하는 노동성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금천예술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 놀자고 했는데 노동성이 반복돼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니 재미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미디어 작업을 시작했어요. 각자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감

각들을 미디어로 표현해 보자고 했고, 직접 사진을 찍고 화면을 구성하는 식으로 했어요.

작년에 대중과의 소통 부분이 아쉬워서, 올해는 대중이 참여하는 토론 형식을 구상했거든요. 작가와 예술가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직접 대면하고 느낌을 알기 위해 공원이나 공공 공간을 대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게릴라 형식의 해프닝을 유도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시해야 하는지, 행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뒷받침될지 고민이에요. 뜻하는 바가 관람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전시 연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코로나19 이후로는 공동 창작을 할 때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거나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환 큐레이터님과 작가님들과도 화상으로 많이 만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체장애인이다 보니 이동성에 구애하지 않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좋았고, 특히 작가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집중이 돼서 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만 작업 진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정보를 주고받지 말고 작업을 해보고 그런 채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보자는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문영민 저도 코로나19 이후 화상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니까 오히려 조금 더 편해지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화상 회의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다음은 극단 핸드스피크 배우이자 영화감독이신 김승수님께서 비대면 공연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우리나라에 청각장애인은 중도장애, 난청 등을 포함해 약 36만 명이 있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있고, 소외돼 있고, 소통이 어려워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교류해야 하는데 차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는데, 무



관중으로 네이버 온라인 생중계가 되는 공연이었습니다. 수어로 공연할 때는 청인배우(목소리를 연기하는 배우)들과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 배우와 청인배우가 함께 맞춰보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 당시 중계 촬영팀에 여러 명이 있었고, 화면으로 중요한 감정을 수어로 잘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맨(촬영기사)과 호흡해야 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온라인 중계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면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방법을 연구하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면해서 공연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 수어로 전달합니다.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느낌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보면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관람할 경우 화면으로 감정이 잘 전달되지도 궁금합니다. 수어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수어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 카메라에 맞춰 기존 동선을 조금씩 옮겨서 연기해야 합니다. 배우 입장에서 연결해서 동작을 할 때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보면서 연기해야 하고 또 연출·무대감독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져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선과 대사의 번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공연 형식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결 방법을 고민하며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TV 화면 하단에 수어 통역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수어가 잘 안 보입니다. 코로나19 재난방송에서는 수어 통역 화면이 옆으로 크게 나와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수어 통역 화면이 좀 더 커지면 좋겠고, 말하는 사람 바로 옆에서 통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도 확실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 저는 최근 3일 동안 열린 무용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직접 재난 상황을 경험했는데요. 무용 공연은

관객과의 호흡, 현장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감정과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관객을 모시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빌려서 많은 관객을 초대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 최소 인원 예약제로 하루에 80명만 받았습니다. 대신 영상에 신경을 써서 현장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고 편집해서 공연 영상을 만드는데요.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촬영하고, 송출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다른 장애예술인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질문을 던졌어요. 전시는 1주나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나눠서 관람객이 오고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시회 촬영 영상을 송출해서 공유하기도 하고요. 성악을 하는 장애예술인은 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원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영상에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향후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이 닥칠지 몰았을 때 20~30년 동안 활동한 원로들의 말씀은 조금 달랐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부터 작품 활동을 해 왔고 종종 지금처럼 어려운 재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황하지 않고 작품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예술인이라는 큰 틀에서 본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와서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야 사람들이 보고 찾아주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상황이 지나갔을 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가로서 깊이를 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인의 개념에 대해 저도 계속 고민하거든요. 다양한 시도와 논쟁을 통해 부딪치고 경험해 보면서 정체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중에게 공연

(왼쪽부터)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문승현
작가(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으면서 본질적으로는 장애예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영민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작업에서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깊이 들어가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이자 배우이신 김원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저는 포항 지진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공감하는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기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 안전망을 갖추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이제 장애인이 격리되지 않고 어느 공간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매뉴얼들은 비현실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개인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무수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틀에서 제시할 수는 있겠죠. 이를 테면 최소한의 장비와 전동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옮겨놓을 수 있는 의자나 수동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경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빛을 이용한 경보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난상황에 닥쳤을 때 예를 들어 김환 작가님, 김승수 배우님, 김원영이 대피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처음 보는 하우스 어서와 대피 계획을 얘기하려면, 업고 갈 수 있는지, 잡아주면 걸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 이런 걸 묻고 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열린 상태에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장애인 자신도 충분히 탐색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대피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연장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잠실창작스튜디오라면 입주작가들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꼭 비장애인 매니저가 장애인 작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을 깨는 겁니다. 이럴테면 시각장애인 작가와 청각장애인 작가가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청각장애인 작가가 음성경보를 켜서 시각장애인 작가한테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죠. 반대로 시각장애인 작가가 위험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조명을 이용한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요. 서로 지켜주고 돌보는 규칙을 만들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사를 간다면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는 당연히 갖춰야겠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상행동을 하는 경계를 앞당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행사 시작 전에 매니저님과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업고 가면 될까요?' '네, 제가 업힐게요.'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보죠. 어딘가에서 화재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안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계속 울리면 탈출해야 하는데 저는 업혀야 하니까 심리적인 장벽이 크잖아요. 만약 매니저님이 저의 몸을 잘 알고, 저는 업히는 연습을 해봤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경보가 울렸을 때 조금 더 빨리 그 상황으로 진입하겠죠. 서로 익숙해지는 연습이 사전에 시행된다면 작은 위험 경보에도 곧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난 시기가 전환점이 되길

문영민 마지막으로 재난 시기에 장애예술인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공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과 못다 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일상이 재난'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충격을 별로 안 받았고, 지진이라고 특별히 무섭지는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포항에서 만난 여자분은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문화시설이 서울보다 없기도 하고 교통도 불편하니까요. 제일 필요한 게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금천예술공장·신당창작아케이드에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못 들어가면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게 맞고요. 2018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도 장애가 있는 분들을 초대했는데 시간 맞춰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 미술관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면 재난 대비를 안 해도 돼요. 배리어프리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겠어요. 재난 시기에 장애인의 취약성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배리어프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환 비슷한 의미로 저도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신념 중 하나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장애도 다르고 장애 안에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잠실'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고 도와주는 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나와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 장애예술을 하면서 공연하다 보니 대관할 때 대기실에서 무대로 가는 통로가 계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초청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습니다. 장애인석은 부족한데 중간 통로도 비상 통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이음센터에서 장애인전용극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좌석의 활용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예술계에서 활동하다 보면 예술이면 다 예술인데 왜 장애를 붙이냐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보호막이 필요해요. 그 이후부터는 비장애인 예술가와 1:1로 경쟁합니다. 단순히 예술 활동을 하는 것과 창작을 하는 것은 달라요. 무용은 안무도 하고 창작을 해서 공연을 연출하는데,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많은 경우 비장애인 예술가와 경쟁합니다. 예술가로서 성장해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영민 코로나19는 장애예술인들이 언제나 겪어왔던 어려움과 처우, 장애예술정책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장애예술인들이 새로운 만남이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다른 재난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의 논의가 예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만들어내는 데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기자, 문화정책 연구·기획 사진 서울문화재단

(왼쪽부터)
박은선
창작그룹 리슨투더시티 대표,
김환
작가(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현 11기 입주작가),
김승수
핸드스피크 배우, 영화감독,
김용우
안무가, 한국장애인무용협회
회장,
김원영
변호사, 연극배우,
<같이 잇는 가치> 기획단

이것은 예술의 몫

조영남의 사기 혐의는 왜 무죄인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위작이나 저작권 다툼이 없는 한 사법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술사가 전하현 씨는 “대법관의 현명한 판결대로 ‘예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법적 판단 영역이 되어선 안 되는 예술을 일부 예술인들이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의 1·2심 판결문과 공개 변론을 지켜본 필자 역시 그의 견해에 공감한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여전히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평론가 조차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7월 10일 SBS에서 방영한 <궁금한 이야기 Y>도 조영남이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주장을 합리화한다’며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 사건을 정리한 기사와 글은 이미 많으니, 판결에 대한 미술 기자로서의 의견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정리해 봤다.

비전문가인 조영남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전문가이니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다?

검찰이 주장한 논지였으나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구분이 잘못됐다. 검찰은 조수 송모 씨가 전문 교육을 받고 개인 전도 수차례 열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봤다. 이에 반해 조영남은 본업이 가수인 아마추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벌이나 전시 횟수로 예술가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누진 않는다. 바스키아·백남준 등 미대를 나오지 않은 예술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의 조형 언어와 철학이다.

조수를 사용해 완성한 그림을 팔았다. 검찰은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의 그림에 덧칠과 서명만 해 자신의 것으로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가수 조영남 씨 사건 이야기다.

남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과 사인만 하면 내 그림이 되나?

설치 작품은 덧칠조차 하지 않아도 의뢰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한다. 작가가 자신의 철학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영남은 자신이 기존에 그린 그림 등을 레퍼런스로 구체적 지시를 조수에게 전달했다. 2심 판결에서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다. 조영남이 과거 혼자 그린 작품을 재판부에 보여줬고, 조수도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창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구매한 사람이 속았다고 생각하면 사기 아닌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이기택 대법관은 검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었지요?”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또 질문. “구매자가 친작이라 믿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사적으로, 계약 내용을 보고 검토할 성질의 문제 아닌가?” 즉 구매자가 친작이 아니어서 ‘속았다’고 생각한다면 환불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구매자 모두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조수를 사용했다라도 조영남의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한 구매자도 있었다. 여기에 2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에 유도 질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미술계의 더러운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법으로 인정
해준 꼴이다?**

조수 사용이 '더러운 관행'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가 좋아하고 지켜보는 작가들도 대다수는 조수 없이 그림을 그리지만, 추구하는 조형 언어나 철학에 따라 얼마든지 조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수를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는 미술계에서 비평 등으로 논할 일이지, 사법부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은 아니다. 역시 공개변론에서 이기택 대법관은 “조수를 사용했느냐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적법한 조수 사용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위법한 대작 화가를 사용한 것인지 구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검찰에 물었다. 여기에 검사의 답변은 이랬다.

“대법원에서 금일 구별 기준을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조수의 개념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사건처럼 아예 전업 화가에게 맡겨 완성된 상태에서 액자까지 끼워 받은 다음에 덧칠만 하고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판매한 것은 문제다.”

검사의 취지대로라면 예술가들에게 어디까지 조수를 사용하라고 법으로 정해줄 뻔했다. 작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덴마크 작가 아스거 온(1914~1973) 전시에는 액자까지 끼워진 초상화 위에 덧칠한 작품도 나왔다. 예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통제하려는 행태가 아찔했다. 다행히 현명한 법원은 이 판단이 사범이 아닌 예술의 영역이라 결론지었다.

이번 재판을 취재하며 예술에 관한 인식의 간극이 판단 주체마다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전공을 했건 하지 않았건 말이다. 다만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는 작가의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형 언어로 활성화돼 나오는지 냉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 일은 작가와 기획자, 비평가, 미술 시장이 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가릴 일은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해두고 싶다.

글 김민 <동아일보> 기자 사진 연합뉴스

온오프라인 경계에서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하다

코로나19 시대의 무용예술 현장

‘무용워크숍’ ‘무용교육’이 온라인으로 과연 가능한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지만 현재
우리는 온라인으로 무용 공연을 하고, 무용 수업을 한다.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생을 도모해
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마스크가 없으면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조차 엄두
가 나지 않는 세상에 살며 코로나19로 인해 새삼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마스크와 한 몸이 돼 코로나
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마음가짐
으로 앞으로 살아나갈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는 “코
로나 블루”만을 외칠 수는 없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
아갈 수 없다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하반기 코로나19
2차 재확산 및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진행 중인
사업의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를 반복할 수만은 없는 것

이다. 우리는 여전히 재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
하거나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 일들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뉴 노멀
(New normal)’ ‘언택트(untact)’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
들여 사회적 거리 두기, 입장 시 체온 검사 및 인원 제한
등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재편해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
기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유
연성을 발휘한 예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이다.

위드(with) 코로나를 맞이하는 무용계는 다른 예술 장르

1 2018년
서울국제안무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진행 장면



의 현장과는 같은 듯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무용은 안무를 만들어야 하고, 공동으로 연습해야 하고, 공연을 함께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한다. 갑자기 공연장 문을 닫아야 했던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연습조차 할 수 없었던 예술가들은 공연 진행이 불가능했다. 관객들은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송출해 주는 무료 공연 영상물들로 ‘안방 1열 관람, 집에서 보는 무용’을 즐겼다면 이제는 그것마저 식상해진 상태다. 실제 관람하는 만큼의 만족감과 공감을 주지는 못한 것이다. 공연의 예술적 효과는 근본적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서로 교감하며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서울무용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으로 유연한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0 서울국제안무워크숍(8.17(월)~8.30(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잇따른 공연 취소와 불확실한 작업 일정으로 안무가들은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안무의 고유성을 부각할 수 있는 워크숍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무용센터는 해외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 시기에 적절한 주제와 담론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함으로써 동시대적 감각을 증진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해 무용 예술가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의미미한 주제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형식을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교류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서울국제안무워크숍>은 예년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워크숍 참여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한다. 독일·대만·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참여하는 강사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강사와 참여자 모두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무용계의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연습과 발표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이럴 때일수록 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을 변화시켰듯 우리의 일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마저 변화시키고 고민하게 하고 있다.

올해 <서울국제안무워크숍>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와 다방면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무용계 현장에 필요한 주제와 담론을 다루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테크닉보다는 ‘안무’에 집중할 수 있는 예술가를 섭외했고,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서울무용센터와 강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별 내실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14일간 진행될 서울국제안무워크숍의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국제안무워크숍> 외에도 서울무용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하고 있다.

2020 서울국제안무워크숍

구분	프리 프로덕션에서의 안무	프레임 속의 안무	부대 프로그램
소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안무’와 그 ‘고유성’에 대해 탐구하는 안무 워크숍	영상 미디어 프레임 속 안무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댄스필름 워크숍	2020년 프로그램 주제와 열린 워크숍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규모	6개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	2개 프로그램
형식	온오프라인 워크숍	온오프라인 강의 및 실습	온오프라인 인터뷰, 피드백 세션
참여 강사	권령은, 이운정, 김봉수&양은혜, 뮌(Mu:p)(조형준&손민선), 최은진, Su Wen-Chi	박홍열, 송주원, 장성학, Elysa Wendi	Gabriele Brandstetter & 손옥주

2 줌으로 진행된
<2020년
안무랙처시리즈>
1회차 '퍼포먼스와
사라짐의 수행'
3 레지던시
오픈콜 선정자
(공영선 안무가)
리서치 과정 공유회
<축지법 체조>
(2020.6.23(화))



2020 안무랙처시리즈(6~12월, 총 9회 운영)

당초 오프라인으로 5월 시작될 예정이던 <2020년 안무랙처시리즈>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진행 일정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무한정 연기하거나 이미 세팅된 사업을 100% 변경할 수 없어 강연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스코어 워크숍'처럼 대면 워크숍이 불가피한 경우는 1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안무랙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것보다 막상 진행하고 보니 매회 출석률도 높았고, 오프라인상에서보다 더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가는 등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무용센터 레지던시 오픈콜

레지던시 오픈콜 선정자의 리서치 과정 공유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다. 소수 정예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인원으로 진행할 때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장점 또한 있었다.

2020 안무랙처시리즈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운영 방식	운영 장소
1	6.26(금)	퍼포먼스와 사라짐의 수행	양효실	온라인 강연	Zoom Webinar
2	6.30(화)	비평적 실천으로서의 컨템퍼러리 안무	김재리		
3	7.21(화)	스코어 워크숍	이민경	현장 워크숍	서울무용센터
4	7.22(수)				
5	8.25(화)	Feminism and Queering in Choreography	Jeremy Wade	온라인 강연	Zoom Webinar
6	9.22(화)	미술관에서의 안무	방혜진		
7	10.20(화)	사회적 안무	서동진		
8	11.24(화)	안무가가 주도하는 큐레이션	장혜진	현장 워크숍	서울무용센터
9	12.8(화)	피드백 워크숍	임지애	온라인 워크숍	Zoom Webinar

2019~2020 서울무용센터 해외 안무가

교환 프로그램 'Space RED'

해외 안무가 교환 프로그램 결과 공유회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준비하는 동안 무브먼트 리서치(Movement Research) 교환 안무가(최진영)도 2배 이상 부담되고, 무용센터 또한 2배로 힘들었지만 막상 진행하고 나니 영상 아카이빙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홍보와 기록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취소·연기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를 잘했다는 뿌듯함이 다가왔다.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순간을 함께 이겨내고 있으며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



4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이 제한돼 해외 교류 사업마저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비대면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서울무용센터는 웹진 [춤:in]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변화해 가는 무용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왔다. 처음에는 'Cancellation'을 주제로 예술가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고,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고민했지만,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그림에도 불구하고 무용예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변화하는 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마음 치료를 위한 몸 사용 설명서'와 같은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이 시기에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untact) 환경에서의 문화 예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지점을 찾아가는 것 또한 기획자와 예술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중세 시대 흑사병 창궐 이후,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이 열렸듯이 예술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 그 실체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방

춤:in

2020
April
#41호

Zoom : in	<p>[에세이] 캔슬레이션(Cancellation) 고주영 외 3명</p>									
Zoom : out	<p>Paris, November 18th 2015 Dear Public, As the author of 7 pleasures and on behalf of the dancers performing this evening, I feel the need to share some thoughts. As a group of dancers we have had to perform in these extreme circumstances that happened on Friday in this city and that are...</p> <p>[에세이] 일상에 침투한 비가시적 공포, 새로운 불가항력에 당면했을 때 신재민_기획자</p>									
[춤+어기] 춤과 움직임, 건축과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다	<p>이제 우리의 공통 수호 대상의 나의 '찬란한 별안'</p> <p>Presenting in March 2020 & Feb. 2021</p> <p>[춤+어기] 춤과 움직임, 건축과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다 박정민, 건축가</p>									
[춤+어기] 움직임은 통해 삶을, 삶을 통해 움직임을 본다	<p>[프/리뷰] 무엇이 사람들을 '일하게' 일하게 하는가 김재민_드라마무브로그</p>									
Information	<p>공연</p> <table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d>한영숙신성 100주년 기념 춤축제 <한영숙춤, 역사...></td> <td>2020-04-22</td> <td>More</td> </tr> <tr> <td>출판여우 출판연작 내연애 <프롱></td> <td>2020-04-23</td> <td></td> </tr> <tr> <td>국립무용단 (예연)</td> <td>2020-06-05</td> <td></td> </tr> </table>	한영숙신성 100주년 기념 춤축제 <한영숙춤, 역사...>	2020-04-22	More	출판여우 출판연작 내연애 <프롱>	2020-04-23		국립무용단 (예연)	2020-06-05	
한영숙신성 100주년 기념 춤축제 <한영숙춤, 역사...>	2020-04-22	More								
출판여우 출판연작 내연애 <프롱>	2020-04-23									
국립무용단 (예연)	2020-06-05									
Zoom : view	<p>코로나19 예술가 지원정책 KIT</p> <p>[안내노트] 코로나19 예술가 지원정책 KIT 서울무용센터</p>									
일자리	<p>MORE</p> <p>MOCAPFE(국제현대무용제) 2020 서포터즈 모집 안내 2020-04-06</p>									

5

식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이끌어내야 한다. 필자가 이 원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힘을 발휘하는 '예술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다.

글 정경미_서울무용센터 매니저 사진 서울문화재단

현재 진행형의, 〈서울은 미술관〉

홍제유연(弘濟流緣)

“서울시 공공미술(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태도가 바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모습을 긍정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예술적 풍경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 공공미술위원회 인터뷰 중



타원본부(정지현, 2019)- 중앙 용마포공원

Dance of Light(유원, 나루세, 2019, 녹사평역지하예술정원)-매연동

SEOUL URBAN ART PROJECT
서울은 미술관



지하담霧露緣(박제성, 장석준, 정소용, 2018)- 신영동 삼거리육교

윤술_서울을 비추는 만리동(SOA, 2017)- 만리동광장



술 갤러리(김아연, 2019, 녹사평역 지하 예술정원)- 녹사평역 B4층

홍제유연 弘濟流緣(정성준, 김민준, 김민준 외, 2020)-유진상가 하부

〈서울은 미술관〉

최근 공공미술 관련 기사에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한다. 〈서울은 미술관〉은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형물과 벽화가 주를 이루던 공공미술을 넘어, 현시대가 요구하는 도심 속 공공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시범사업 등 공공미술의 체계화를 통해 새롭게 시범적인 작품들을 선보인 지 올해로 만 4년을 맞는다. 그간 대표적인 작품은 ‘윤술: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타원본부’ ‘자하담’ ‘홍제유연’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등으로, 이들은 작품이 설치된 장소의 의미, 사회적 맥락과 결합해 예술가들의 상상을 우리 모두의 공간 속에 정성스레 풀어내고 있다. 국내의 전문가들의 호평(2019 SEGD Merit Award, DFA Grand Award,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상 수상)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서울은 미술관〉은 올해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가 바라보는 공공미술

서울시는 전담 팀을 갖추고 시(市) 차원에서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유일한 지방정부다. 2016년 12월에 ‘서울은 미술관의 약속’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공공미술’이라는 철학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홍보, 관광명소화, 복지 제공이 우선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겸손한 방식을 선택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를 담아내는 도시예술”을 지향한다.

공공미술은 작가의 독창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공적 영역으로서의 행정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구현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참여자 상호 간의 포용과 존중이 바탕이 돼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일치시켜야 최종적인 결과물이 완성된다. 시민 역시 단순 관람객이 아니라 작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작품 선정 과정, 프로젝트 일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체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은 공공예술로서의 성격을 갖춰간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술적 풍경, 잊혀거나 버려진 도시의 흔적을 깨우는 작품들을 통해 내가 사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미술이 갖는 의미다. 〈서울은 미술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장소는 현재 8곳(용마포공원, 만리동광장, 녹사평역, 유진상가 하부, 청파로,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신영삼거리 육교)뿐이다. 매년 1~2점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작품마다 설정된 생애 주기에 따라 일부



는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공공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절제의 실천이자 도시 변화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삶터 가까이에서 시민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문화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도시 서울, 예술적 정취가 넘쳐나는 지붕 없는 미술관을 꿈꾼다.

홍제유연 탄생의 배경과 의미

홍제유연(弘濟流緣)은 〈서울은 미술관〉의 일환인 ‘2019 지역단위 공공미술’ 사업으로 추진됐다. 매년 1개의 대상지를 공모로 선정하고 장소밀착형 기획을 통해 “그 장소에 있어 의미를 갖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2019년 1월, 서대문구는 유진사가 하부 지하통로 개방과 연계해 작품을 설치했다. 풀숲을 헤치고 어렵사리 물을 건너 만난 공간은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건물을 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110여 개가 열주를 이루고, 한 발 내딛기 힘든 돌무더기와 함께 거미줄이 장식처럼 걸린 어두운 동굴. 기둥과 벽, 바닥에 어지럽게 적힌 글씨들과 오래된 설비들이 쌓인 공간은 50년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유적지와 같았다. 서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독특한 풍경, 유진사가의 역사적 맥락,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비물질과 기술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시간의 흐름과 소리를 키워드로 유진사를 재조명하는 공공미술사업을 시작했다.

‘홍제유연’이라는 이름은 끊어지고 대립하던 과거의 상흔을 예술로 잇고 화합한다는 뜻을 담았다. 유진사가는 1970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청와대로 가는 탱크 저지선 용도를 고려해, 홍제천 위 인공 지반을 세워 건설한 당대 최고의 주상복합아파트였다. 11km 홍제천에 사람길을 가로막았던 유진사는 산업화 시대 내부순환로 건설로 건물 일부가 잘려나가는 등 다사다난한 현대사를 겪으며 한때 지역의 흉물로 취급되기도 했다.

50년 만에 발굴된 황량한 땅 밑 공간을 재생시키는 데 서대문구가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예술기획자(장석준)를 포함한 작가 6팀(빈·진기종·염상훈·윤형민·팀코워크·홍초선)이 참여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사람들의 동선 연결, 안전시설 정비, 완전한 작품 구현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공공미술 최초로 최대 크기(3.1×1.6m)의 3D 홀로그램을 시도하고, 12시간 동안 자연의 소리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빛의 조각을 연출했다. 역사적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던 빨래터이자 먹물 감기도 하던 치유의 물 홍제천이 작품



1 〈홍제 마니차〉(시민 1,000명, 2020, 홍제유연)
2 〈온기1〉(팀코워크, 2020, 홍제유연)

을 담는 그릇이 돼 시민을 맞는다. 수면에 반사되고 회절하는 빛 조각들이 공간을 채우고 1,000명 시민의 따뜻한 메시지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곳. 청동오리와 물고기, 자라가 사는 생태천과 어울리는 빛의 예술길 ‘홍제유연’은 2020년 7월 1일 개방 이후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돼가고 있다.

나가며

세계는 현재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뉴노멀 시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친밀했던 것들과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낯선 일상에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은 도시의 콘텍스트와 삶의 다이내믹스가 공존하는 도시다. 이곳을 배경으로 펼쳐는 공공미술은 무엇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 계속 깊이 성찰할 예정이다. 언젠가 공공미술의 선진 도시로 서울이 선두에 설 수 있을 날을 꿈꾸며...

글 이혜영_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사진 제공 서울특별시



뮤지컬 <제이미>의 공연 장면

한국 상륙한 웨스트엔드·브로드웨이 최신 화제작

뮤지컬 <제이미>와 <편흥>

코로나19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힘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의 최신 화제작 2편이 국내 초연으로 나란히 무대에 올라 침체된 공연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뮤지컬 <제이미>와 <편흥>이 그 주인공이다.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각각 무대 규모는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따뜻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내 감동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함께 보면 더 흥미롭다.

※ 해당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드래그퀸’ 꿈꾸는 10대 소년의 성장담

<제이미> | 7. 4~9. 11 | LG아트센터

<제이미>는 2017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뒤 오픈런으로 공연 중인 작품이다. 드래그퀸(여장 남자)을 꿈꾸는 17세 고등학생 제이미의 성장담으로 실존 인물인 제이미 캠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2011년 영국 B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제이미: 16세의 드래그퀸(Jamie: Drag Queen at 16)>에서 영감을 받은 연출가 조너선 버터렐이 작곡가 댄 길레스피 셀즈, 작가 톰 맥크래와 함께 뮤지컬로 만들었다.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이미>를 공연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오리지널 프로덕션을 그대로 선보이는 레플리카 형태로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만큼 작품 분위기는 하이틴 영화처럼 밝고 유쾌하다. 주인공 제이미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솔직하고 당당한 캐릭터다. 제이미의 꿈은 드레스를 입고 졸업 파티에 가는 것이다. 드래그퀸이 되고 싶은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



만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펼쳐진다. 제이미를 묵묵히 응원하는 엄마 마가렛과 이모 레이, 전설적인 드래그퀸 로코 샤넬이자 제이미의 롤모델인 휴고, 제이미의 하나뿐인 친구 프리티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작품에 매력을 더한다.

팝음악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경쾌한 음악, 스트리트 댄스를 방불케 하는 현란한 안무, 여기에 드래그퀸들이 펼치는 화려한 쇼가 더해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드래그퀸 외에도 노동계급, 이슬람교도, 여성 등 소수자의 이야기가 곳곳에 녹아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막에서 마가렛이 제이미도 남들과 똑같은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며 절절하게 부르는 넘버 '히즈 마이 보이(He's My

Boy)'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 위해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잘 보여준다. 가수 조권, 뮤지컬배우 신주협, 그룹 아스트로 멤버 MJ, 뉴이스트 멤버 레이 제이미役に 캐스팅됐다. 최정원·김선영이 마가렛 역으로 이들과 호흡을 맞춘다. 윤희석·최호중이 드래그퀸 '로코 샤넬' 휴고 역으로 무대에 올라 반전 매력을 뽐낸다.

레즈비언 딸, 게이 아빠의 비밀을 찾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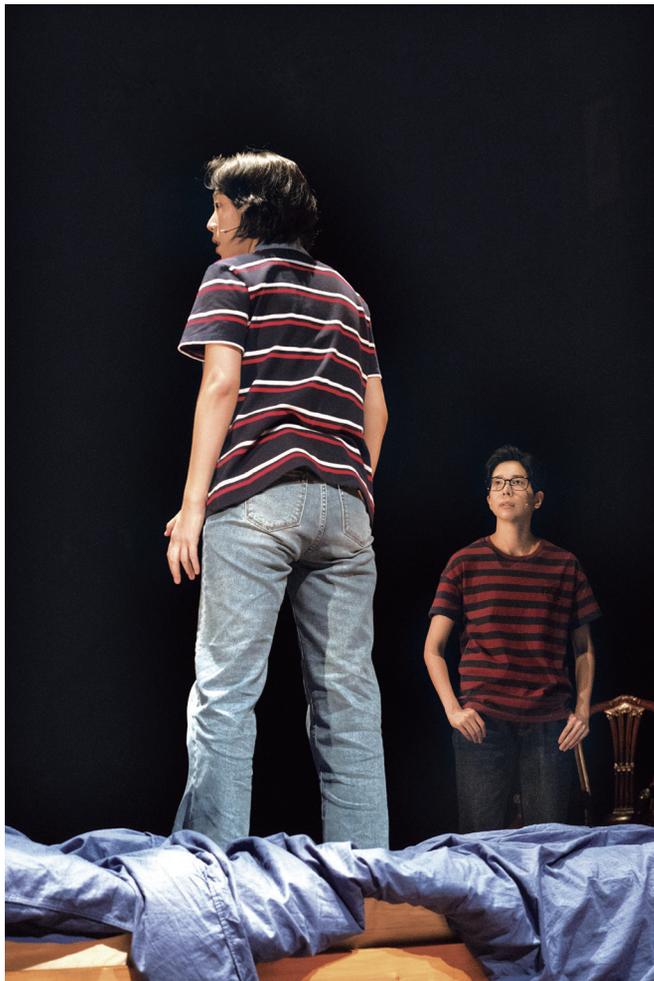
〈편홍〉 | 7. 16~10. 11 |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

〈편홍〉은 2015년 토니상에서 작품상·극본상·음악상·남우주연상·연출상 등 5관왕을 차지한 브로드웨이 화제작이다. 레즈비언 작가 앨리슨 벡델이 자신의 회고록으로 발표한 동명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다. 작곡가 지닌 테소리, 작가 리사 크론이 무대화해 2014년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다. 이듬해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토니상을 휩쓸었고, 이후 영국 웨스트엔드까지 진출했다. 원작자인 앨리슨 벡델은 창작물에서 여성의 비중을 평가하는 일종의 성 평등 테스트인 '벡델 테스트'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 이 작품으로 전미비평가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국내 초연은 공연제작사 엠피앳컴퍼니가 제작하고 달컴퍼니가 주관한다.

앨리슨 벡델이 직접 극 중 주인공으로 등장해 극을 이끈다. 장의사이자 영문학 교사이던 아빠 브루스 벡델을 떠올리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학에 들어간 뒤 레즈비언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앨리슨은 그 무렵 아빠가 클로짓 게이(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결혼한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앨리슨은 그동안 아빠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빠와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알아간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구나 공감할 평범한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다. 잔잔하면서도 감성적인 음악,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풀어낸 극본이 만나 오랜 여운을 남긴다. 특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소재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내 가깝고도 먼 존재인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만든다. 한 무대에서 3명의 배우가 서로 다른 나이의 앨리슨 벡델을 함께 연기해 눈길을 끈다. 방진의·최유하가 43세, 유주혜·이지수가 19세, 아역배우 설가은·유시현이 9세의 앨리슨 벡델을 연기한다. 브루스 벡델 역에는 최재웅·성두섭이 캐스팅됐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태일〉 〈차미〉 등 섬세한 무대를 선보여 온 연출가 박소영이 국내 초연을 책임진다.

글 장병호_《이데일리》기자 사진 제공 쇼노트, 달컴퍼니



뮤지컬 〈편홍〉의 공연 장면

렌즈 속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전시 <폴리처상 사진전>과
2020 서울사진축제 <보고싶어서>

코로나19는 과거를 그림계 만들었다. 이전에 우리가 그저 지나치던 순간과 풍경을 새롭게 돌아보게끔 만들었다. 과거의 기억과 순간들이 사진으로 박제되면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가 일어난다. 때로는 일상의 재구성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사진이 가진 '순간포착'의 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들이 울어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을 통해 마주하는 과거의 순간

<폴리처상 사진전> | 7. 1~10. 18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과거의 사진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신문 등에 실린 생생한 보도사진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화염 무기인 네이팜탄에 모든 것이 타버려 옷을 벗고 뛰어아만 했던 여자아이. 전쟁이 무엇인지조차 생경했던 어린 소녀가 폭력 상황에 말려든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쟁 중에는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반전 운동을 만들어냈고, 네이팜탄 사용을 금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진은 사실상 베트남전을 끝낸 사진으로 역사에 남았다. 이 사진을 찍은 닉 우트는 1973년 폴리처상을 수상했고 전신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17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진 속의 소녀 김 폭은 베트남전의 참상을 고발하는 아이콘으로 남았



<폴리처상 사진전-슈팅 더 폴리처>에 전시된 로버트 코헨의 <피거슨의 시위>(2015)



다. 또 남아공 출신의 사진가 케빈 카터는 한 소녀가 기아로 쓰러지길 기다리는 독수리를 찍은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받았다. 케빈 카터의 사진은 《뉴욕타임스》에 게재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인 구호를 이끌어냈으며 아이티 재해의 참상을 알린 패트릭 패럴의 사진은 관심의 사각지대였던 중남미에 원조가 쏟아지게 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사진기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풀리처상 사진전-슈팅 더 풀리처>에서는 1942년 시작된 풀리처상 보도 부문 사진 수상작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그 시절 생생한 역사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에는 1942년부터 2020년까지의 풀리처상 보도 부문 수상작 134점을 선보인다. 1957년 ‘안드레아 도리아호의 침몰 사진’을 비롯해 2015년 ‘LA의 폭력 반대 촛불집회 사진’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지역의 의료진 사진’ 등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한국 국적 사진기자로는 최초로 풀리처상 사진 부문을 수상한 로이터통신 김경훈 기자의 작품도 전시된다. 김경훈 기자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자 행렬인 카라반을 취재하며 미국 국경 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온두라스 소녀의 사진을 찍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3전시실에서는 2005년 이라크전쟁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여성 중군기자로 2014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취재 도중 사망한 ‘안야 니드링하우스’의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사진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순간

2020 서울사진축제 <보고싶어서> | 7. 14~8. 16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사진은 현실을 바로 비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찍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되는 ‘2020 서울사진축제’에서는 이러한 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두 개의 전시로 구성됐는데 그 가운데 주제 기획전인 <보고싶어서>에서는 국내외 작가 12명이 가족사진과 풍경사진 등 일상이 주제가 되는 사진을 통해 의미가 없던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본 작가 사나이 마사후미는 ‘살아있는’ 시리즈에서 매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로와 벌판, 주거 지역의 일상을 담는다. 무작위로 찍은 것처럼 보이



2020 서울사진축제 <보고싶어서>에 전시된 사나이 마사후미의 <살아있는>(1995)

는 사진들은 작가에 의해 마치 살아 있는 과거의 어떤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을 가진다.

작가 고정남은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그에게 여행의 장소란 현실을 벗어난 이상이자 꿈의 공간이고, 보고 싶은 것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그곳에서 사랑했던 사람과 그 순간의 추억들을 이야기한다.

레바논에서 태어나 16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왈리드 라드는 그의 고향에서 벌어진 레바논 내전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는 ‘사진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진행된 레바논 내전의 역사를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비튼다. 다큐멘터리 방식을 활용해 레바논 역사를 재구성했지만 역사적인 신뢰성은 없이 전쟁의 외상과 내전의 모순된 이야기에 포커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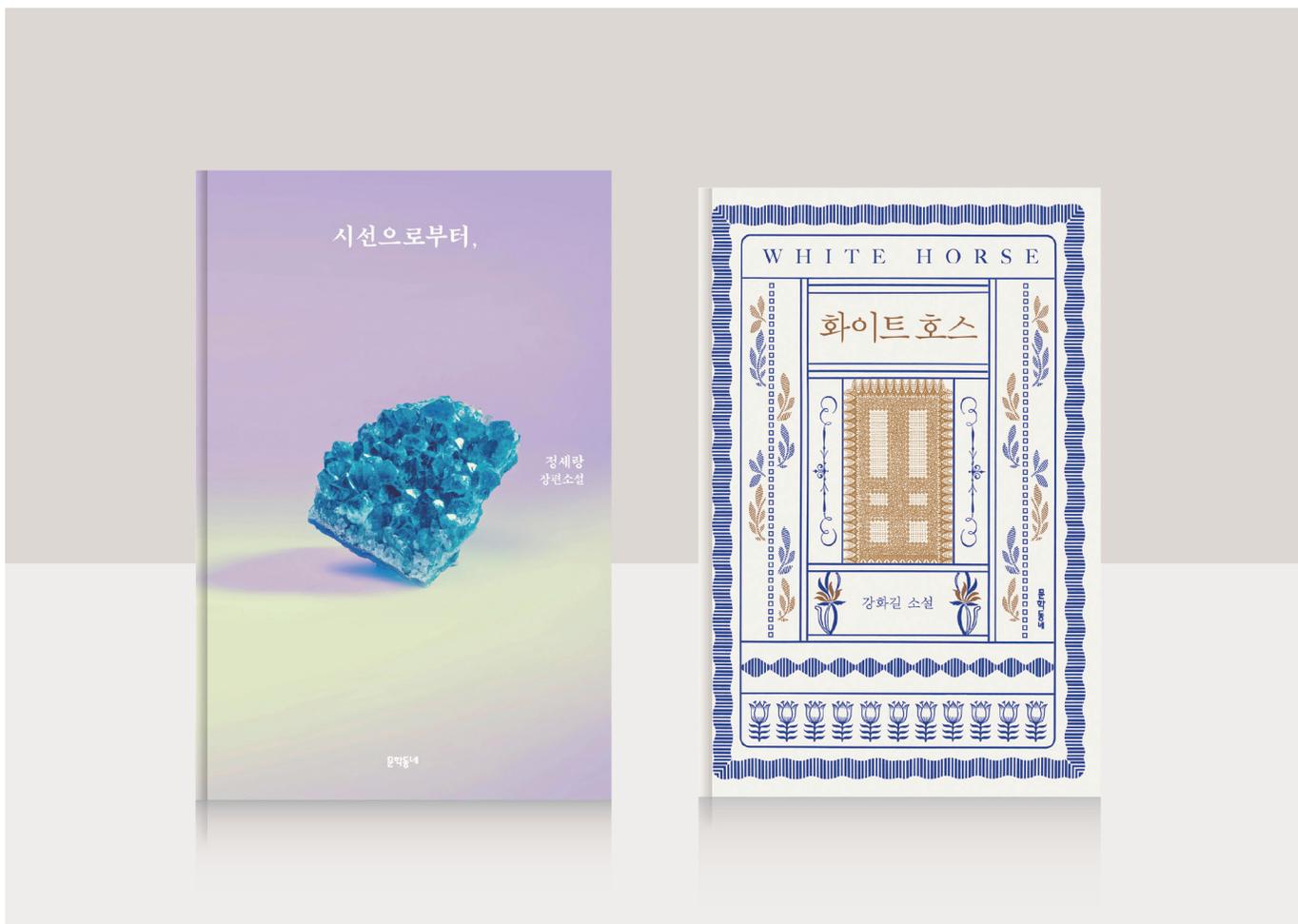
휴대폰이 카메라를 대체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일상적으로 셔터를 쉽게 누를 수 있게 됐다. 작가들은 전시를 통해 우리가 사진 찍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날과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시간이 흐른 후 그 사진들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사회의 역사성과 구조, 모순 등이 다시 드러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글 박지현_《파이낸셜뉴스》기자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서울시립미술관

기억해야 할 어떤 계보, 단단하게 나아가는 여성의 이야기

책 〈시선으로부터〉와 〈화이트 호스〉

여기 두 가족의 제사 이야기가 있다. 정세랑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를 찾은 한 가족의 이야기자, 녹록지 않은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다. 강화길의 신작 〈화이트 호스〉에 수록된 단편소설 〈음복〉은 혼한 제사 풍경 속 젠더 권력을 내보이며 가족 안 '여성의 자리'를 서늘하게 보여준다. 현 시기 한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소설가 2명이 들려주는, 단단하고 예리한 여성의 이야기.





20세기를 살아낸 여성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

《시선으로부터,》 | 정세랑 지음 | 문학동네

“지난 세기 여성들의 마음엔 절벽의 풍경이 하나씩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욱 하게 되었다. 10년 전 세상을 뜬 할머니를 깨워, 날마다의 모멸감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떻게 가슴이 터져 죽지 않고 웃으면서 일흔아홉까지 살 수 있었느냐고.”

소설은 한 여성의 가계도로 시작한다. 화가이자 작가이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여성 심시선이 두 번의 결혼으로 만들어낸 ‘모계 중심’의 가계도다. 소설가 정세랑이 4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책 제목처럼 ‘쉽사리 희미해지지 않는 사람’ 심시선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3대의 이야기다.

심시선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가족 12명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기로 한다. 심시선은 생전 “사라져야 할 관습”이라며 자신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부를 충실히 이행해 온 가족들은 10주기에는 조금 특별하게 그들의 어머니거나 할머니인 심시선을 기억하려 한다.

“이 소설은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정세랑은 난폭한 세계에서 곳곳하게 생존하고 사랑한 여성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꺼내 보인다.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몰살당한 기억, 여성을 분풀이 대상이자 장식품으로 취급한 남성 중심 지식인 사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를 ‘문제적 여성’으로 만든 사람들의 시선. 심시선은 그 모든 난폭한 것들 속에서도 글 쓰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날마다의 모멸감’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그의 딸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웬만한 헛디딤에는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세랑 작가는 소설을 쓰는 동안 그의 ‘계보’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많은 여성이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위로의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추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매일 아름다움을 발견해 내던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지도 끝내는 계속해 냈던 사람이 등을 밀어주었으니까.”

무지라는 ‘안온한 권력’

《화이트 호스》 | 강화길 지음 | 문학동네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 단호하고 서늘한 한마디로 소설은 시작된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남편 가족의 제삿날, 화자인 ‘세나’는 집안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감지한다. 제사가 진행되는 단 몇 시간 안에 이 집안 갈등의 역사와 숨겨진 비밀, 막후에 진행된 가족 간의 은밀한 협약 같은 것들을 눈치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장손으로 사랑받으며 살아온 남편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느긋하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 이 평범한 가족의 관계 뒷면에 있는 차별과 희생 강요, 서로에게 품은 뒤틀린 애정과 미움을 알아야 할 이유도, 알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아챈 적도 없는 사람. (중략)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네가 진짜 악역이라는 것을.”

소설가 강화길의 단편소설 <음복>은 가부장제에서 ‘무지가 곧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내이자 며느리인 세나의 시선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 재빠르게 눈치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의 ‘읽’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들의 ‘모름’. 인지기능의 통상적 권력 구조를 역전하며 소설은 평범한 한 가족, 일상적인 제사 풍경을 스릴러의 문법으로 전개한다. 강화길은 이 소설 <음복>으로 올해 제11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소설을 포함해 단편 7편이 수록된 그의 두 번째 소설집 《화이트 호스》가 최근 출간됐다.

강화길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로 인한 여성의 불안과 공포를 다양하게 변주한 소설을 발표하며 ‘한국 여성 스릴러’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았다. 작가는 책 속 여성 인물들을 ‘모든 것을 아는 화자’의 자리로 위치시켰다. 홀로 세계의 기이함을 눈치챈 여성들이 등장하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교묘한 폭력과 억압을 드러낸다. 소설가 편혜영은 “강화길은 어디에나 있는 여자들 이야기로 어디에도 없는 장르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글 선명수_《경향신문》기자 사진 제공 문학동네

1987년 7월 11일 명동성당 뒷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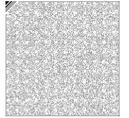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 행렬

비행기가 지붕 위로 날아가는 곳에서 몇 년을 살았다. 서너 살이 되어 걷기가 편해진 아이가 추우나 더우나 마당으로 나가 놀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 사이렌 소리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였다. 비행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사이렌 같았다. 어린애가 어떻게 사이렌을 무서워하지? 나는 갑작스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공포감을 느끼는 편이고, 지옥보다 공권력을 더 무서워했다. 그런데 왜 어린애가 사이렌 소리를 무서워하지? 원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인가?

1987년의 그날을 이야기하려고 서론이 길어졌다.

1980년은 '서울의 봄'이란 감상적인 단어로 시작됐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남는다. 꽃이 피어도 춤기만 했던 5월, 광주에선 전두환 군부의 동족 살육이란 만행이 시작됐고 그 진위 공방은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 그해 늦봄과 여름 사이에 온 나라를 짓누르던 침묵의 공포 속에서 광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내 정신을 주눅 들게 했다.

이런 1980년, 광주를 지나 전두환 군부는 이듬해부터 대학을 잠재우기 위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시작했다. 의식 있는 학생들을 '좌경오염 방지'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집했고, 일부는 대학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오도록 하는 관제 프락치로 만들었다. 이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학생들은 자살하거나 자살당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끝내 잠재울 수는 없었다. 백골단과 전경이 상시 주둔해 있던 대학에서 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 1984년이었다. 1986년 5월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해 결국 숨을 거뒀다. 7월 권인숙 학생의 성고문 폭로로 온 나라가 들끓기 시작했다. 학살의 원흉으로 지목된



전두환·노태우·정호용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태우고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으려 미국문화원 도서관을 점거했고, 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민정당사를 점거했다. 1987년 1월 박종철 물고문 치사 사건이 터졌고, 6월 9일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았고(7월 5일 사망), 6월 10일 마침내 전국적인 반독재 군부정권 타도의 불길이 타올랐다. 마침내 온 나라에서, 모든 부문의 종사자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자기모멸이 본능인 듯 여겨지던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과 사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광장과 거리로 나와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쳤다. 6월 29일 드디어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 복권 등 8개 항의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 있었다. 막힌 것이 뚫리는 시간, 생명을 짓누르는 폭압이 밀려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7월 11일 명동성당 뒷마당에서 축제 마당이 펼쳐졌다. 나는 민주인사도 수배자도 아니었지만 해방감으로 기뻐다. 여성전화 대표로 일하던 노영희 시인, 동아일보 지영선 기자와 함께 축제를 관람하러 그곳에 갔다. 공연이 잘 보이는 입구 맞은편 위쪽에 앉아서 관람했다. 행복감마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정호용 등을 조롱하는 길지 않은 마당극도 흥겨움을 부추겼다. 우리는 다 함께 박수 치고 웃고 소리 지르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유를 만끽했다. 막히고 옥죄고 억눌린 느낌이 사라진 육신의 기쁨! 자유로움은 그것 자체로 사랑이고 공유이며 존중이란 걸 알게 해줬다. 흔치 않은 시간, 아직도 생생하다. 관람 관중이 모두 흥겨움에 젖어 있을 때 입구 쪽으로 아는 얼굴 하나가 기이한 형상으로 나타났다. 우람한 몸의 채광석 시인. 혼이 빠져나간 듯이 보였고 나는 순식간에 불길한 상상을 했다. ‘풀빛출판사’에 번고가 생겼구나! 《한국민중사》를 출판하고 감옥에 있는 나병식을 떠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축제가 끝났다. 우리는 명동에서 늦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채광석과 동행하기로 하고 그의 등 뒤로 다가가서 쿡 찢렸다. 그가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넌 누구니? 거의 이런 표정이었다. 혼이 그를 떠난 것 같은, 허깨비의 느낌에 섬뜩했다. 섬뜩한 느낌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고요 속에서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경자야. 광석이 죽었다...” 소설가 윤정모가 울면서 말했다. 7월 12일 새벽, 그가 관계하던 민요연구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져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죽어서 더 커지는 사람들 속으로, 채광석이 들어간 것이다.

흙을 뒤엎으면 이상 한파의 심장 속에서/스스로 새싹을 키워 온 꽃순들을 만나느니/우리들은 버려온 계절의 고통을 귀에 담으며/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이여 너마저 잠재우는/시대의 곤고함과 자아의 무반성을/통째로 흔들어 깨우며/우리는 다시 죽어야 한다 봄에 눈을 뜨는/새싹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 속에서/사랑과 함께 죽어야 한다.

사랑 안에 사랑으로 죽어 사랑으로 다시/태어나 그 찬란함을 이 봄에 맞기 위해서라면

(후략)

채광석의 시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

글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나라는 인간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16가지 나와 너의 성격 유형 맞춰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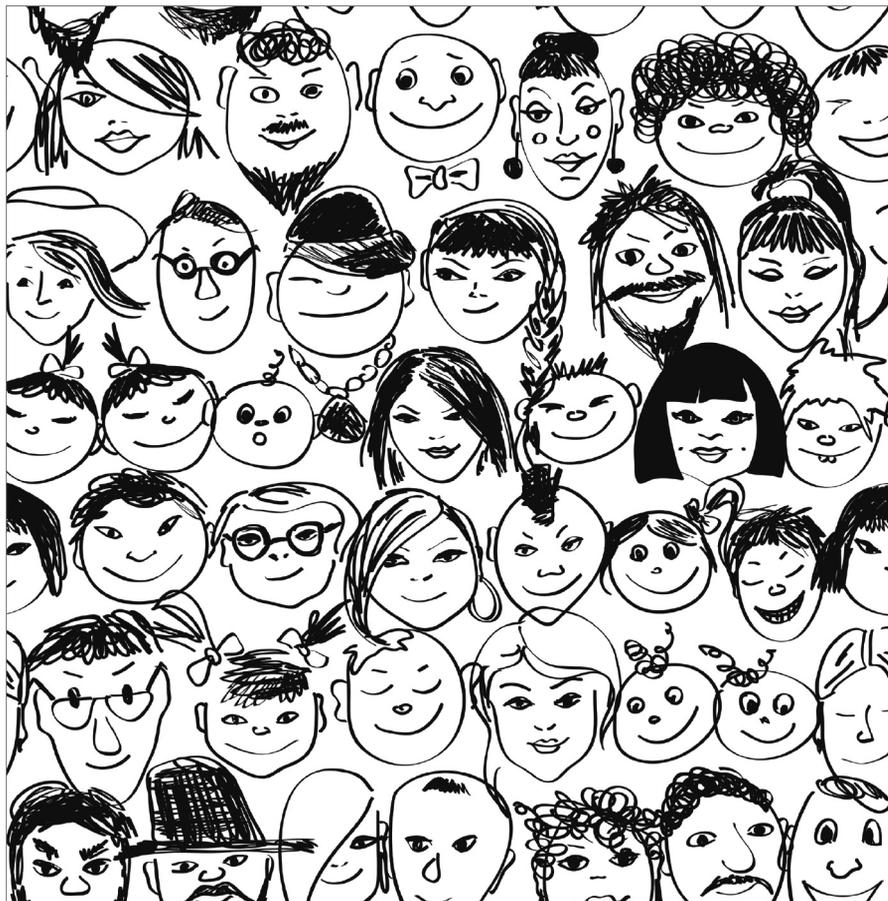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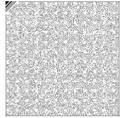
‘MBTI 검사’라고 들어보았는가? MBTI 검사는 성격 검사의 일종으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한다.

젊은 층 사이에선 유형별 티셔츠나 폰케이스 같은 굿즈까지도 유행한다.

‘재미로 보는 것’이지만, 결과가 궁금하고 또 많은 부분 공감이 되기도 한다.

‘믿어도 될까?’ 하는 마음과 묘하게 수궁이 가는 마음 사이 어딘가를 시계추처럼 움직인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얼마 전, 김풍 작가로부터 링크 하나를 전달받았다. 링크는 성격유형 검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다른 일들로 마음의 여유가 없던 터라, 미루고 미루다가 몇 주나 지나서 테스트를 해 보게 되었다. 결과는 INFJ였는데, 거의 10년 넘게 이와 비슷한 유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성격이나 자아라는 건 꽤나 부지런히 바뀌어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늘 마주하게 되는 저 비슷한 알파벳을 보면서, 나라는 인간도 꽤 일관성 있게 살아온 모양이구나, 생각했다.

내가 한 검사에 따르면 INFJ는 '선의를 옹호자' 유형으로 넓은 만델라나 마틴 루터 킹이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설명이 나왔다. 또 모든 유형 중 가장 드문 유형이며,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런 설명을 읽어나가면서 어쩐지 나에게 덕담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고, 스스로를 한결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이런 유형의 '역사적 인물'이 소개되니 왠지 뿌듯함 같은 것마저 들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성격 유형 테스트라는 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자신 안에 스스로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물론 단점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이 함께 소개되곤 하지만, 내가 속한 성격 유형이 약직적이거나 나쁜 것이어서 '잘못되었다'라든지 '성격 고쳐야 한다'든지 '못된 인간'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 대체로는 어느 성격 유형이든지 그 나름의 장점을 잘 살리면 어떤 직업군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며 속삭여준다. 더군다나 모든 성격 유형에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한둘쯤 있다는 것은 역시 어떤 소속감마저 주고, 상당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나 같은 성격도, 나같이 생겨먹어도 대단해질 수 있구나, 멋질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떤 것에서라도 확인'받고' 싶은 내 모습

요즘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때아닌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한다. 서로에게 링크를 보내며 SNS로 자신의 성격 유행을 캡처해서 올리고 알리는 일들이 일종의 문화가 되고 있다. 과

거에도 이런 성격 테스트야 있었다지만, 요 근래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나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만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절실하다든지, 어쨌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과 위로를 받고 싶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넓게 퍼져 있는 건 아닐까 싶다. 김풍 작가는 이런 현상 속에 서로 다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청년 세대는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거의 잃게 됐고, 취업난은 더 극심해졌다고 한다. 청년의 삶이라는 것에서 해외의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배낭여행을 가기도 하고, 매일같이 밤새도록 친구들과 술 마시며 클럽을 전전하고,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우며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일은 확실히 꽤나 옛날 일이 된 것 같다. 그보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대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모두 카페에 몰려가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토익 학원을 가고, 여러 스터디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 매일 놓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학점은 무슨 알파벳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무엇이 달려 있는지, 어느 회사의 서류 전형에 통과했는지 같은 것으로만 끊임없이 정체성을 확인 당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다운 나' 혹은 '나의 마음'이나 '성격' 같은 정체성을 찾고 싶을 것이다.

MBTI의 대유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격이나 정체성 확인이 그만큼 유행한다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격이나 정체성의 결핍이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아마도 때로는 사랑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을 것도 같지만, 요즘에는 사랑조차 스펙이 결정하고, 내가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연애나 사랑의 운명 같은 것도 결정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숫자나 스펙이 아닌 '나'라는 인간을 인정받는 일, 확인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그런 일을 '성격 유형 검사'에서라도 찾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 같은 것이 이런 현상에 녹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풍경 또한 마냥 재밌는 놀이리키보다는 한편의 쓸쓸함 같은 것을 품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글 정지우_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서로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내게로 오는 공원 ③ 포이근린공원



공원이 시작되는 경계. 그 지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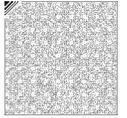
서로 이질적으로 여겨졌던 영역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경계를 낮추고, 경계심을 낮추고, 사유지와 공원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경계도, 우리 사회의 완고한 단면도 조금은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 Smooth Yoo

포이근린공원 근처 건물 뒷마당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사진의 아래쪽은 한눈에 봐도 누군가가 상당히 신경 써서 조경을 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한쪽에는 바닥용 벽돌을 정성스럽게 깔았고 그 위쪽으로는 여섯 개의 네모난 돌을 징검다리처럼 가지런히 이어놓았다. 그 아래쪽에는 익숙한 디자인의 야외용 의자가 보인다. 심어놓은 식물 하나 하나는 그냥 평범한 것들이겠지만 그들이 이루고 있는 조화, 즉 높이와 너비, 질감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꽃들이 그 사이에서 피어날 것이다.

그 너머, 즉 사진 위쪽에는 다소 건조한 디자인이 펼쳐진다. 하지만 차분한 색상의 바닥 마감재, 회색 계열의 수목보호판, 사진 위쪽으로 훑길 보이는 코르텐 스틸 재질의 화단에 이르기까지 이 역시 절제할 줄 아는 프로의 손길이 미친 결과물인 것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의 디자인적 차이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차이일 수도 있음을 읽어낸다면 분명히 매우 밝은 눈의 소유자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추측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진의 묘미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만나는 지점

이곳은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포이근린공원, 그리고 그 인근의 한 건물 뒷마당이다. 사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보이는 경계석이 두 영역을 가르고 있다.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서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대규모 공원은 물론 소규모의 생활권 공원 또한 그 경계는 거칠고 완고하기 마련이다. 인근 대지와와 경계에는 예외 없이 담장이 둘러서 있고 통행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서로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앞으로 더 일어날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서로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일종의 작은 실험인 셈이다. 물론 이전부터 우리 사회

에서는 담장 허물기 운동이 있어왔다. 서울시가 2002년 시작한 '대학담장개방사업', 1995년 시작된 대구시의 유서 깊은 '담장 허물기 운동' 등이 그 사례다. 이 대부분은 사유지와 도로 사이의 담장을 허무는 것이었지만 사유지와 공원 사이의 담장을 허무는 사례는 아직 매우 희귀하다. 그런데 그 현상이 이곳 포이근린공원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공원의 경계를 허물자 생긴 공존의 영역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 대구의 '담장 허물기 운동'이 대구 서구의 한 시민이 자기 집 담을 먼저 허물면서 시작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주인공은 바로 라이브스케이프라는 조경설계회사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하다. 몇 년간 이 장소로 입주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2019년에 그 기회가 왔다고 한다. 이 건물의 정면은 워낙 반대편 도로 쪽에 있고 이쪽은 뒷면이었는데, 마침 담장도 없고 해서 그 사이의 작은 땅을 가꾸어 공원 쪽으로도 개방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물은 앞으로 얼굴을 갖게 됐고 공원도 훨씬 밝고 안전해질 수 있었다. 따로 길을 내거나 자동차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계석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일 뿐이니 이것을 두고 공적 영역을 침해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철망이나 시멘트 블록으로 된 우악스러운 담장을 두르는 것에 비해 역설적으로 얼마나 더 공공적인 디자인인가. 대학의 담장을 허물 때도 그랬고 주택의 담장을 허물 때도 항상 그 폐해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다. 논의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고 세련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문가 및 공공의 개입과 관리가 있어야 하며, 민간의 높은 시민의식 또한 필수적이다. 다행히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은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런 점에서 포이근린공원의 이 작은 풍경은 사회 각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도시 환경 실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 황두진_건축가,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오리면 어때, 날지 않아도 괜찮아

유지영 감독의 <수성못>



피가 무서운 드라큘라, 채식을 좋아하는 좀비, 거짓말 못하는 양치기 소년, 알프스를 떠나고 싶은 하이드,
늑대가 좋은 빨간 모자, 새엄마보다 안 예쁜 백설공주, 뽀뽀가 싫은 개구리 왕자, 완전한 물고기가 되고 싶은 인어공주.

괴짜 같아 보이겠지만, 살짝 삐딱하고 많이 모자란 우리 모습은 동화 속 주인공과 다르다.

어쩌면 찬란한 해피엔딩과 아주 먼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요술할머니도 없고,
평생 왕자도 나타나지 않는 신데렐라이거나 그냥 태생이 못생긴 오리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바다도 호수도 아닌, 그곳

별로 가진 것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희정(이세영)은 수성못에서 오리배 매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편입이 지긋지긋한 대구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노력한다. 그러다 잠시 잠든 사이 수성못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다. 자신이 오리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늦은 밤 슬며시 구명조끼를 못에 버리는데,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영목(김현준)은 희정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한다.

유지영 감독의 <수성못>은 바다도 호수도 아닌 대구의 '못'을 배경으로 우리들의 못난 청춘(시절)을 바라보는 영화다. 영화는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희정과 어떤 방법으로든 죽어보려는 영목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그 어떤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삶이 정답지가 없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희정은 매일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흘려보내는 동생 희준(남태부)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희정은 뒷장에 자욱이 남을 만큼 매일매일 꼭꼭 눌러쓰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려 한다. 열심히 세상 속에 뒤섞이고 싶지만, 오히려 늘 혼자다. 영목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어 자살방지센터에서 사회봉사를 하지만, 다시 한번 자살하고 싶어 한다. 그는 늘 세상에 무심한 듯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특이한 것은 영목이 자살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혼자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는 늘 사람들을 모아 함께한다. 아주 잠깐이지만 죽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생기가 돌고 반짝거린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늘 죽고 싶었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위안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영목은 자살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지만, 이미 그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루를 애써 함께 살아가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날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오리 새끼>의 해피엔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 멋지게 날아올 수 있다는, 뻔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믿고 싶어 한다. 사실 언젠가는 나도 멋지게 날아올 백조일 거라 꿈꿔보고, 못난 현재의 나를 다독이고 싶다. 뭉툭한 내 날개도 언젠가는 활짝 퍼지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그런데 <수성못> 속 청춘들은 못난이들이지만 처음부터 백조가 아니다. 심지어 호수보다 작은 '못' 위, 진짜 오리도 아닌 오리배 같은 처지다. 유유히 호수 위를 유영하기 위해 우리는 물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물장구를 친다는 교훈을 대입하기도 애매하게 모형 오리는 애초에 다리조차 없다. 게다가 오리배는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두 사람이 부지런히 발을 저어줘야 휘청휘청 겨우 움직인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노력해 봐야 못 안을 빙글빙글 돌 뿐이다.

마지막 장면, 희준은 도를 권하는 여자를 따라간다. 삶이 무료해 그토록 죽고 싶어 하던 희준 역시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감독은 혼자 타면 균형이 맞지 않는 오리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읊조린다. 불완전하지만 누군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한다.

희정은 그토록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부지런한 물질을 멈추고 제자리에 섰다. 영목과 희준은 달리지 않았으니 넘어지지도 않았다. 감독은 청춘들의 꿈이 하늘 위가 아닌 바닥에 있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다. 단단하지 않아도, 너털너털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특 치는데, 그게 또 위로가 된다.

<수성못>(2017)

감독 유지영

출연 이세영(오희정 역), 김현준(차영목 역), 남태부(오희준 역), 강신일(박씨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40%

간편하다!

제로페이 서울

PC·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청도 간편하게!

1 제로페이 홈페이지 검색

zeropay.or.kr



※ 유사 사이트(zeropay.co.kr) 주의

2 회원가입

'가맹점 등록 확인' 조회 ▶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입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소비자는 QR코드로 결제도 손쉽게!

1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의 결제 앱 설치

·설치 후, 결제계좌 등록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2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 QR코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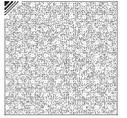
3 결제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소상공인 돕고!
소득공제 받고! **제로페이**서울

※ 가맹점 신청: zeropay.or.kr





WEB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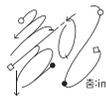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현재라는 수평



〈쓰다〉 7호 포스터

〈쓰다〉 8호 포스터

지난여름, 지지난 여름을 유난히 그리워하게 되는 여름이다. 올해 여름휴가를 받고 보니 생각이 많아진 것이다. 작년, 재작년 나는 제대로 된 피서를 떠나지 못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집에서 보내는 느긋한 시간에 그럭저럭 만족했다. 언제고 마음만 먹는다면 바다로든 산으로든 떠날 수 있을 줄 알았다. 비행기 타는 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하여튼 요즘 나는 지나간 여름들을 떠올리고 있지만,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어떤 장소는 아니다. 어떤 기분도 아니다. 물론 지지난 겨울, 반나절 일정으로 들렀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서점에 다시 가보고 싶긴 하다. 그곳의 여름을 느끼며, 여름 서점에 오니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생각하고 싶다. 그럼에도 내가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순간은 작년, 재작년 여름의 어떤 상태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무엇도 포기되지 않았던 날들. 그저 평온하던 그 시절에 내 자유의 한 조각을 떼어주고 떠났던 것만 같다.

2018년 7월호를 들춰보았다. 〈핀, 핀, 핀〉이 불러오는 건강한 기운이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 볼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지만, 힘차게 굴러간 공이 열 개의 핀을 깨부수듯 쓰러뜨리는 순간의 쾌감이 여름에 잘 어울린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작년에 써놓은 것이 컴퓨터 어딘가에 있긴 했다. 무엇 하나 추가할 항목이 없어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력서였다. 게임이나 계속해. 나는 다 마신 맥주 캔을 구겼다. 스튜디오에서 서른한 살짜리 형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력서를 돌



려 봤거든. 그런 것도 하나. 나는 구겨진 맥주 캔을 더욱 작게 구겼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턴도 없어, 봉사활동도 없어. 토익이나 학점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있는 게 나이밖에 없어. 나이밖에 없어서 해줄 말이 없어. 민제가 맥주 캔에 소주를 부었다. 잠시 적막이 흘렀다.

한신아, <핀, 핀, 핀> 부분

주인공은 지방대학의 졸업반 학생이다. 그는 친구 민제, 규태와 '썬더 볼링즈'라는 이름의 볼링동아리를 함께한다. 그들은 동아리를 핑계로 모여 술을 마시며 볼링을 즐기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 작은 동아리와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볼링은 셋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서로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어느 날 볼링을 그만두겠다고 민제가 꺼낸 취업 스테디 이야기에 세 사람은 잠시 말문을 닫는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취업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자아실현이니 꿈이니 하는 이야기는 끼어들지 못한다. 누군가 취업을 계획한다면 그는 부지런히 이력을 쌓아야 한다. 그는 자기 매력을 몇 줄의 문장이나 몇 개의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어쩌면 취업이란 지금 그들이 술 마시며 즐기고 있는 저 대낮의 볼링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무엇일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무엇도 포기되지 않았던 날들이 끝나간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볼링선수였다. 데뷔전에서 그는 오직 '스트레이트 볼' 하나로 승리를 거머쥐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그날의 그 순간. 어쩌면 주인공의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날의 그 장면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주인공은 트로피를 닦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가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세계'를 산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란 그의 초라한 현재를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란 남은 인생을 걸고 다시 쟁취하고픈 미련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인생 최고의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종종 꺼내 보는 트로피처럼 좋은 시절을 잘 모셔두고 있다. 볼링공과 트로피를 닦듯이 거기에 먼지가 내려앉지 않도록.

2018년 8월호에 신두호 시인은 이런 문장을 적었다.

주어져 있는 것은/다만 남겨진 것/원래부터 그곳에 있던 것은/아무것도 아니었으니//약속한 시간이/정해진 장소와/달라졌다고 해도//겹겹의 조각을 포개며/종이를 모으던 손과/어긋나게 되었다고 해도//유리잔 안의 물이/진동을 감지하듯/수평만을 유지하게 되니까/일어나지 않는 일들만이/밤새도록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니까/

신두호, <물의 곁> 부분

시의 제목에서 이미지를 빌리자면, 흔들리는 수면은 수평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곁을 나누고 또 나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의 문법을 따르자면, 어쩌면 주인공이 감지하는 불안한 미래와 아버지가 끝없이 돌아보는 과거 사이에서도 현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평'을 맞추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핀, 핀, 핀>은 주인공이 아까 못 넘어뜨린 나머지 세 개의 볼링핀을 향해 스트레이트 볼을 힘껏 굴리는 장면으로 끝난다. 나는 그가 멋지게 스페어를 처리했으리라 믿으며 소설 읽기를 마쳤다. 그를 포함하여 세 친구의 일상이 수평을 맞추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글 김잔디_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작은 것들을 위한 민주주의

〈입법극장〉 5화 ‘다수결은 옳고 곧 민주주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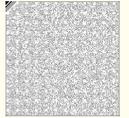


〈입법극장〉 1부 공연 장면(왼쪽)과 공연에 참여한 관객들(오른쪽)(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일민미술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신문박물관이 협력한 전시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이하 〈새일꾼〉)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는 텍스트로 관객에게 민주주의와의 대화를 제안한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입법극장〉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환경문제, 동성혼의 법제화 등 첨예한 사회문제를 비롯해 자본주의에서 예술가의 삶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민주주의 대안을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입법극장〉은 총 5회의 프로그램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5화 ‘다수결은 옳고 곧 민주주의다?’이다. 1부는 연극, 2부는 북토크로 이루어졌다.

1부는 헨리크 입센의 〈민중의 적〉 중 4막을 다루었다. 1882년에 발표되고 2년 뒤에 극으로 무대에 오른 〈민중의 적〉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 작품은 날카롭게 현실 사회를 반영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극본에 충실하되, 우리 사회가 겪어온 현재를 반영해 ‘다수결 원칙’의 문제를 드러냈다.

무대로 사용된 천경우 작가의 작품들(설치 〈Listener’s Chair〉, 싱글채널 비디오 〈Uneven: Mazurka〉)은 1989년 폴란드 원탁회의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폴란드 원탁회의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던 시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해 6월, 폴란드에 첫 민주주의 선거가 도입됐다. 또 다르게



주목할 만한 점은 극 중 배우들의 위치였다. 배우들은 관객과 경계를 두지 않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가, 극이 시작되자 연기를 시작했다. 누가 배우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극의 설정인 연설장에 와 있는 듯한 모습을 이끌어냈다.

2부는 애스트라 테일러의 책《민주주의는 없다》를 주제로 안규철 작가·노명우 교수·김도희 변호사와 함께 민주주의와 다수결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안규철 작가는 여러 작품을 통해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탐구해 왔다. 연대와 자유가 부딪히는 순간과 누가 '우리'임을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 기반을 탐구하는 작업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노명우 교수는 시대의 흐름 안에서 가치관 충돌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심판관적인 태도를 벗어나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전달했다. 이어서 김도희 변호사는 법적인 주체가 인간이 아닌 동물, 자연환경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사례와 현재 국내에서도 진행 중인 유의미한 소송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대해 자유로 나아갔던 과정이었듯이 예술도 시대와 맞물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연대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예술 또한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가 소외되고 숨겨져 있던 주체들의 담론을 돌아보길 요구받는 현재 상황은 예술이, 예술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교과서에서 배웠듯,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로 민중(Demos)과 통치(Kratos)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충돌하는 사회문제를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도록 아주 느리게 풀어나가야 한다. 애스트라 테일러는《민주주의는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자치는 그런 거다. 이 상이자 원칙이며, 항상 멀리 있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지평선에 걸려 있는 것. 우리가 계속 손을 뻗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약속은 권력자가 만들고 깨는 것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의 부단한 각성, 창의,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다.

김도희 변호사는 돌고래를 위한 변호를 준비한다고 한다. 바다에 사는 돌고래는 70년 넘게 살 수 있지만, 포획돼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12년이고,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평균수명 4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거제 씨월드에선 돈만 내면 돌고래를 놀이기구처럼 탈 수 있다. 인간의 잠깐 즐거움을 위해서 돌고래를 혹사시키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소수자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고 동물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둘러싼 것들의 행복을 상상할 수 있는 곳에서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글 박상미_주로 예술기획, 예술행정, 예술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올해는 현대연극극 공연 기획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papermoonfly@naver.com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다와 고래, 햇빛을 좋아하는 공영선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용을 공부했고, 움직임의 기반으로 극장 안팎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를 소개할 때 그저 “무용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진 못했지만, 최근에 찾은 표현은 “움직임과 춤을 배경으로 극장 안팎의 작업을 한다”예요. 극장과 극장 밖 모두 좋아하기에, 아예 나올 생각도 들어갈 생각도 없죠. 극장이 만들어내는 환상성을 무척 사랑하는데, 극장 밖에서 연습할 때 보던 작품과 극장에 올라갔을 때의 작품과는 간극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고 연습할 때 수없이 본 작품이지만, 극장에 들어서면 그제야 처음으로 만나는 느낌이에요.

Q 여기는 어디입니까?

〈축지법체조〉 작업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갔던 서울무용센터 뒤편에 있는 백련산입니다. 이번 작업의 연습 스케줄 대부분이 작업 파트너인 박성울 씨와 아침에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산을 걷고, 돌아와서 차를 나눠 마시면서 산책을 기록하고, 서로 기록한 것을 바꿔서 보고, 수다를 떠는 식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산을 자주 가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예요. 산에 대한 좋은 기억은 있지만, 몇 년간 단 한 번도 안 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허약해져서 산을 가게 됐는데,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산에 가면 마음이 덜 무거운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서 그때 이후로 산을 매일 갔죠. 예전에는 심신이 허약해 힘을 얻고자 산에 갔다면, 건강해진 지금은 산이 제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상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며칠을 머리 싸매고 궁리해도 안 풀리던 것이 하산길이면 순식간에 풀려요. 아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려던 것이 이거였구나 깨달음이 생기죠. 깨달음이란 이렇게 한순간, 찰나에 찾아오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웃기지만 요즘에는 ‘이번엔 무슨 아이디어를 주시려나’ 하고 산을 다녀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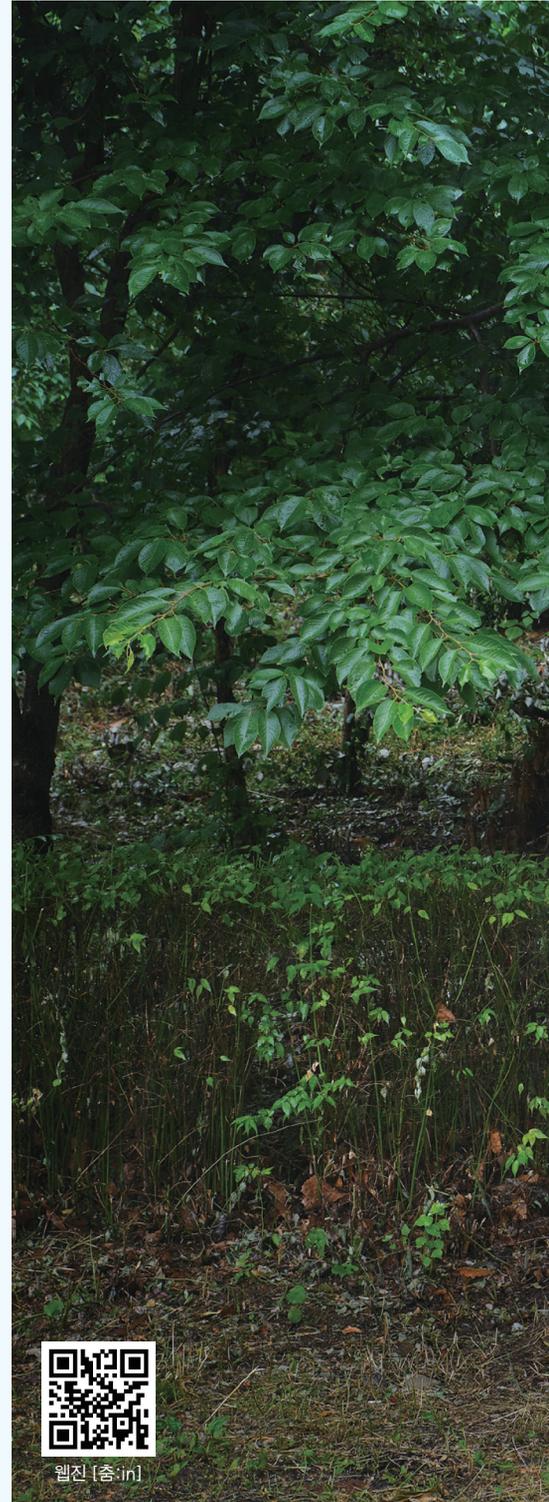
Q 여기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보통은 산을 다니면서 혼자서 수련이나 명상을 하곤 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긴 시간 동안 생각할 무언가를 팔호 안에 넣어두는 거죠. 산을 한창 다닌 다음에야 든 생각은, 이렇게 제가 저에게 시간을 주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고민, 아픈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등산할 때면 그게 가능해요. 산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것, 딱 필요한 행동만 하게 되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여야만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생각해 보니 산이 제 연습실이네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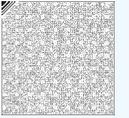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공영선은 무용을 공부하고, 퍼포머이자 안무가로 신체 기반의 작업을 극장 안팎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과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믿음'과 '감각'에 주목해 2015년부터 신화·신화학에 관심을 두고 〈도깨비가 나타났다〉 〈꿈에서 왕으로〉 등을 안무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 [춤:in]



춤+여기

나에게 주는 시간, 산은 내 연습실

안무가 공영선



08

SFAC
문화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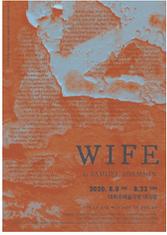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남겨진, 미술, 쓰여질, 포스터> (~10.24)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민화부채 200인전>(~8.4) ● <2020 앙상블 콘서트I Strings>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음악) 선정작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모두가 하나되는 평화 콘서트> ● 2020 산울림 고전극장 <소년 간첩>(~8.16) ● <2020 앙상블 콘서트II Winds>
<p>10</p>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머더발라드>(~10.25) ●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실내악> ● 코리아목관앙상블 2020 정기연주회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시데레우스>(~10.25)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 레블루션 2020 서울: Beethoven(~8.30) 	<p>18</p>	<p>19</p>
<p>24</p>	<p>25</p>	<p>26</p> <p style="text-align: center;">만가나 관악아트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음악) 선정작 <2020 불멸의 베토벤>
<p>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이효재: 입하(立夏)>(~8.31) ● 전시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8.31) ● 전시 <데스 브로피: 즐거운 인생>(~8.31) ● 2020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만개: UI BLOSSOM>(~8.31) 		



Thu	Fri	Sat	Su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공간) 선정작 어린이 가족 뮤지컬 <피터 팬>(~9.27) ● 연극 <반달>(~8.2) ● 2020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연극 <에스메의 여름>(~8.16) ● 국립발레단 <History of KNB Movement Series>(~8.2) ● <엔니오 모리코네 시네콘서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신금례: 화의(畫意)>(~8.2) ●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8.2) ● 연극 <잠깐만>(~8.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아동청소년극) 선정작 <라떼의 꿈>(~10.29) ● 연극 <화전가>(~8.2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시각) 선정작 <미제(未濟)>(~8.30) ● <썸머클래식 Summer Classic>(~8.8) ● 2020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천생연분>(~8.9) ● 연극 <레미제라블>(~8.16) ● 뮤지컬 <썸머로튼>(~10.18) ● 전지적 밴드 시점 <다린-Song on the Beach>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김신일: in between five colors 오색사이>(~8.8) ● 전시 <주명덕: 섞여진 이름들>(~8.8) ● 연극 <와이프>(~8.23) ● 연극 <마른대지>(~8.2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아라베스크>(~8.9) ● <2020 창작지원작가전>(~8.9) ● 전시 <Portfolio View ReView>(~8.9) ● 뮤지컬 <어림없는 청춘>(~8.9) ● 202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이럴때 이런음악>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퍼포논문 <벌어진 연극>(~9.6) ● 202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이럴때 이런 음악> ● 음악극 <나포리 음악다방>(~8.15)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20(~8.3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고우리 <그들의 사적인 연주회>>(~8.27) ● 전시 <고명근: Space of Contemplation 사유 공간전>(~10.25) ● 전시 <Bending Light>(~8.14) ● 2020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세빌리아의 이발사>(~8.1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찾아가는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노들섬>(~8.16) ● 전시 <Rebirth>(~8.15) ●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10.11) ● 202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이럴때 이런음악> ● 클래식 <썸머 브리즈: 김광민>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서울사진축제 <보고싶어서> <카메라당 전성시대>(~8.16) ● 전시 <한국근대서예명가전>(~8.16) ● 전시 <프롬프트>(~8.16) ● 연극 <어나더 컨트리>(~8.1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베토벤 교향곡 1번(~8.21) ●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사업(연극) 선정작 <하늘정원>(~8.30) ● 뮤지컬 <킹키부츠>(~11.1) ● 2020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Die Fledermaus>(~8.2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슈퍼 히어로>(~8.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선정작 <Follow, Flow, Feed 내가 사는 피드>(~8.23)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20 아시아 기획전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8.23) ● 전시 <마을공공건축 기록전>(~8.23) ● 전시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8.23) ●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8.2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멘델스존 교향곡 이탈리아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남현범: What a Coincidence.>(~8.28) ● 뮤지컬 <베르테르>(~11.1) ● 뮤지컬 <무인도 탈출기>(~9.2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어반아트 <2020 MMC: Metal Pandemic>>(~8.30) ● 클래식 <이상 트리오: The Triad>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박노해 사진전: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8.30) ● 전시 <모네에서 세잔까지>(~8.30) ● 전시 <홍끼: 노곤하게>(~8.30) ● 전시 <임영균: 도서관 속의 도서관>(~8.30) ● 연극 <역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극 <와이프>

2019년 서울시극단 '창작플랫폼-연출가'를 통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와이프>는 영국 극작가 사무엘 아담슨의 2019년 작품이다. 여성·퀴어의 삶을 8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유기적이고 집중력 있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일시 8월 8일(토)~2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4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2-794-0923



제7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끌 신진 연출가들의 축제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진 연출가 4명의 공연이 성수아트홀에서 열린다. 홍순섭 연출의 <아르바이트>, 김우림 연출의 <별무리>, 최서은 연출의 <황제의 전갈>, 문병재 연출의 <연출의 탄생>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일시 ~8월 23일(일)
목·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할인을 별도)
문의 02-2204-7563



뮤지컬 <شمشوبن>

작년 내한에 이어 올해 국내 라이선스 초연 작품이다. 낭만의 르네상스 시대, 당대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에 맞서 인류 최초의 뮤지컬을 제작하게 된 '바텀' 형제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작품이다. <레미제라블> <렌트> <위키드> 등 20여 편의 공연 대사와 장면, 넘버 일부를 패러디하고 셰익스피어의 소설 대목과 단어 등을 재기발랄하게 차용한다.

일시 8월 7일(금)~10월 18일(일)
화·목·금 오후 8시 | 수 오후 3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7시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77-3363



연극 <마른대지>

에이미는 곧 임신 10주에 접어든다. 하지만 에이미 곁에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부모님, 임신 사실조차 모르는 남자 친구, 신뢰할 수 없는 친구들뿐이다. 에이미가 조력자로 고른 사람은 같은 수영부의 친하지 않은 에스터. 삶의 중요한 순간, 두 사람은 마침내 너르고 평평한 대지에 당도할 수 있을까?

일시 8월 8일(토)~23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관람료 전석 3만 5천 원
문의 010-2069-7202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20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연극·무용·음악·시각·영상과 더불어 기존 장르로 한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다장르의 예술가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만큼 예술가들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오프라인: 8월 13일(목)~23일(일)(월·화·수 공연 없음)
온라인: 8월 24일(월)~31일(월)
장소 문화비축기지
관람료 온오프라인 티켓 각 2만 5천 원
문의 070-7092-8171



2020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이럴때 이런음악>

2003년 시작해 올해 17주년을 맞게 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원조 공연으로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여름방학 '여름이야기' 시리즈다. 4대의 피아노, 국악과 함께하는 왈츠, 애니메이션 주제곡, 국악 등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공연에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멀게만 느껴지던 클래식 음악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8월 9일(일)·15일(토) 오후 3시
8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영산아트홀·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관람료 R석 2만 원, S석 1만 원
문의 02-332-5545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고우리 <그들의 사적인 연주회>

물리학자 구자현 교수가 함께하는 '음악, 춤추는 뇌'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다양한 시대 별 건반악기로 들려주는 '건반과 건반 사이', 국악 기와 대중가수의 콜라보를 시도한 역사주의 연주회 '문래동 바로크'까지 복합적이지만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이들만의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전시: 8월 14일(금)~27일(목) 오후 2시~8시
연주회: 8월 15일(토) 오후 3시 | 8월 20일(목) 오후 8시
8월 23일(일) 오후 3시
렉처콘서트: 8월 16일(일) 오후 3시
8월 21일(금) 오후 8시 | 8월 22일(토)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363-8864, 010-3497-2019
@private_concert_for_them(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전시 <Bending Light>

세 작가 피터 알렉산더·로버트 어윈·제임스 터렐과 미니멀리즘 예술의 거장 댄 플래빈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레진·LED·형광등 등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빛을 주요 매체로 삼은 네 작가의 작품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일시 ~8월 14일(금)
오전 11시~오후 7시(매주 일·월 휴관)
장소 페이스 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90-9388



2020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세빌리아의 이발사>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와 색채감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 파를란도(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듯이, 자유롭게 연주하라는 말) 등 로시니 특유의 희극적 요소가 가득한 작품이다. 만능 재주꾼 이발사 피가로의 활약상이 재치 있게 그려진다.

일시 8월 14일(금)·15일(토) 오후 7시 30분, 8월 16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C석 3만 원, D석 1만 원
문의 02-583-6515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어둡고 미스터리하게 그려지던 뱀파이어 이야기를 비틀어 코믹하게 만든 뮤지컬로, 서울체고 사격부에서 만년 2등에 머무르는 류진이 우연한 계기로 꽃미모 뱀파이어 준홍과 구마사제 헌식을 만나게 돼 뱀파이어 숙주인 생제르맹의 저주로부터 준홍을 구하기 위한 결투를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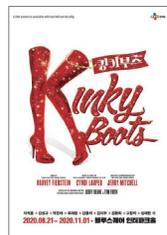
일시 8월 15일(토)~10월 11일(일)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TOM 2관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문의 02-391-8223



2020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베토벤 교향곡 1번

서울시향의 8월 정기공연으로 꾸러진 이번 공연에선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의 지휘로 스트라빈스키 폴차넬라 모음곡,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오보이스트 함경(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제2수석)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을 들려준다.

일시 8월 20일(목)~21일(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C석 1만 원
문의 1588-1210



뮤지컬 <킹키부츠>

제리 미첼 연출, 신디 로퍼 작사·작곡으로 브로드웨이는 물론 전 세계인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며 흥행불패 신화를 이어온 웰메이드 뮤지컬. 폐업 위기의 구두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가 생각도 스타일도 전혀 다른 유쾌한 남자 '룰라'를 만나 새로운 영감을 얻고 80cm 길이의 부츠인 '킹키부츠'를 만드는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일시 8월 21일(금)~11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7시(월 공연 없음)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20 아시아 기획전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전통적 정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서 '가족'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공공의 장(platform)을 제안한다. 아시아 8개국 출신 작가 15팀이 참여해 퍼포먼스·사진·영상 등 작품뿐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8월 23일(일)
 화·목·금·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전 10시~오후 9시(매주 월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6 전시실, 공용 복도 및 전시마당
관람료 4천 원
문의 02-3701-9500



2020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어반아트 <2020 MMC: Metal Pandemic>

'철의 도시인 문래동에서 철의 음악을 두드린다'를 취지로 개최되는 2020 MMC(Mullae Metal City)는 'The age of Metal Pandemic(금속 대유행의 시대)'라는 주제로 국내 헤비메탈 전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신(scene)으로 규합하고, 음악으로 전 지구적 불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한다.

일시 8월 29일(토)~30일(일) 오후 5시~9시 30분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3만 5천 원(1일권), 4만 9천 원(2일권)
문의 dandoori83@gmail.com



박노해 사진전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라카페 갤러리'의 17번째 전시, 박노해 시인의 사진전이다.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단순한 살림으로 풍요롭고, 단단한 내면으로 희망차고, 단아한 기품으로 눈부시게 살아가는 지구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37점의 흑백사진과 이야기로 펼쳐진다.

일시 ~8월 30일(일)
 오전 11시~오후 10시(매주 월 휴관)
장소 라카페 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379-1975



연극 <역척어머니와 그의 자식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벌어진 참혹한 종교전쟁 통에도 이리저리 마차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역척어머니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이름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그녀의 모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맹한 첫째 아들, 정직한 둘째 아들, 친절한 막내딸은 죽음을 맞이한다. 브레히트의 원작을 바탕으로 김규진이 연출을 맡았다.

일시 8월 30일(일) 오후 6시
장소 백암아트홀
관람료 2만 원
문의 010-4234-2623



사진전 <임영균: 도서관 속의 도서관>

사진가 임영균이 지난 6년간 촬영한 도서관 사진을 선보인다. 오스트리아 에드몬트수도원도서관, 바이마르 안나 대공비 도서관, 멜크수도원도서관,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룬롬도서관, 스페인 살라만카 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뉴욕공공도서관 등 50여 곳 가운데 엄선한 10여 곳을 소개한다.

일시 ~8월 30일(일)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
 (매주 금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장소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3486-4050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작가초청전 <아다지에도>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는 열린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작품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광고기획자 유대열이 출간한 사진집 《아다지에도》의 사진 작품들을 활용해, 여행지 속의 따뜻한 일상을 담은 전시를 진행한다.

일시 ~8월 31일(월)
장소 우이신설선 정릉역
관람료 무료
문의 02-6958-1945

2020 서울 국제 안무워크숍

8.17 (월) ~ 8.30 (일)
@서울무용센터

대상 _ 무용 및 타 장르 예술가, 시민 (*워크숍별 상이)

신청방법 _ 워크숍별 구급품 신청 / 7월 16일(목) 오픈 (*하단 신청링크 참조)

참여자 선정결과 _ 7월 31일 개별연락 예정

문의 _ 02-304-0094

공지 및 신청링크 _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예술공간>서울무용센터>서울국제안무워크숍

프리 프로덕션에서의 안무

Su Wen-Chi_Dance and New Media Arts

권령은_스코어에 춤은 없다

김봉수X양은혜_글쓰기와 안무하기

뭉(조형준X손민선)_Network of Networks

이윤정_감각의 재발견

최은진_선택되지 않은 언어들

프레임 속의 안무

Elysa Wendi_Dance Film in Asia

박홍열_댄스필름 제작 실습

송주원_안무가가 감독하기

장성학_예술과 기술

부대 프로그램

Gabriele BrandstetterX손옥주_인터뷰

피드백 세션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Workshop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7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간서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모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다른 기대에서 겨우 접했습니다."입니다. 별 생각 없이 웃기다 재밌다고 소비했던 숨들명과 강이 이렇게 변화된 미디어 활용 방식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하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요즘 편집숍이나 소품샵 사람들이 많이 찾곤 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된 문화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내용의 잡지 계속 만들어주세요!

*[문화+서울]은 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하며 종이 잡지는 무료 배송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유은선 님(경기도 화성시)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디에서 강을 접했나요?"입니다.
 별 생각 없이 웃기다 재밌다고 소비했던 숨들명과 강이 이렇게 변화된 미디어 활용 방식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하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요즘 편집숍이나 소품샵 사람들이 많이 찾곤 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된 문화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의 잡지 계속 만들어주세요!

편집 후기

다음부터 건물주님 자리에 차 안 달게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가로×세로?! 세로×가로!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코로나' 없는 미감을 꿈꾸며.
 김태희 객원 편집위원

시끌벅적하던 여름이 조금 그립습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맛있는 복숭아로 여름 끝자락의 아쉬움을 달래 보겠습니다.
 전은정 객원 기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협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앙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의심될 땐?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 신청

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 차단
누구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서울시민
어디서?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병원 8곳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
※ 고위험집단·시설도 선제검사 예정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로 입장!

[전자출입명부]

대상 민간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공공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 시설별로 의무·권고 등 차이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해제 시부터 적용

방법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QR체크인' 검색·접속 → 정보제공 동의 후
최초 휴대폰 인증 →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확인



서울의 백신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문의 02-120 / seoul.go.kr